



2016 /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The 7th Northeast Asia
Local Assembly Chairperson Forum 2016

주 제 ▷ 동북아시아 지역간 문화관광 교류협력 방안

2016년 4월 18일~20일 }
덕산 리솜스파캐슬 }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개 회 사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기영 입니다.

소중한 행사를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일본 아키타현 의회 시부야 마사토시 의장님, 중국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리룽씨 부주임님, 일본 니가타시 의회 타카하시 미쓰요시 의장님, 러시아 연해주 의회 고르차코브 빅토르 의장님, 몽골 중앙도 의회 체 텡 멘드사이항 의장님, 중국 옌벤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차광티에 주임님, 대한민국 강원도 의회 김시성 의장님과,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하시며 포럼을 빛내주신 중국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 첸수타오 부주임님, 중국 허베이성 인민대표대회 왕전핑 위원님, 일본 나라현 의회 나카무라 아키라 의장님을 비롯한 5개국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뜻 깊은 자리에 참석 해 주신, 천전지에 주한 중국대사관 참서관님, 무라타 켄타로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부일등서기관님, 안희정 충남도지사님, 홍문표 국회의원님, 김지철 충남교육감님, 정목 수덕사 주지스님, 황선봉 예산군수님과 김영호 예산군의장님, 김석환 홍성군수님, 유찬형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님,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님, 김인배 충남관광협회 회장님,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을 대표하시며 본 포럼 준비 등에 노고가 많으신 충남 도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1세기 동북아시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환황해권의 발전과 교류의 중심을 꿈꾸는 도시, 이곳 내포신도시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82년간 대전광역시에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21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2013년도에 내포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충남은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백제' 왕도의 후손으로, 1400년 전부터 동아시아 평화와 문화교류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충남의 새로운 전진기지인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5개국 지방정부의 우정이 활짝 꽃피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동북아시아 각 지역은 그동안 친밀한 우호교류를 바탕으로 괄목할만한 경제협력과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최근에는 유럽, 북미 지역과 대등한 세계 3대 경제축을 형성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동북아시아 5개국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은 2009년 '중국 옌벤자치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후 5개국을 순회하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을 함께 모색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해 왔습니다.

1952년 제1대 의회를 시작으로, 현재 10대 의회를 운영하며 도민을 위해 뛰고 있는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해 충남에서 열리게 된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습니다.

지역 경제성장률 1위, 청년고용률 1위 등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어느 지방정부보다 높은 '선진 자치도'로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는 곳이며 특히, 작년에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충남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환황해 중심지역으로서의 비전을 마련하여 서산공항 민항기와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고속전철 건설 등 하늘길, 뱃길, 땅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국의 지방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관광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경제적 번영을 함께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후부터는 「동북아시아 지역간 문화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됩니다.

주제에 대한 각 국 지방의회의 정책방향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유익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합의사항 발표와 차기 개최지 선정에도 좋은 결실들이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에 참가해주신 5개국 지방의회 의장단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록 짧지만 머무시는 동안 즐겁고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 4. 19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 기 영

포럼 세부일정표

구 분	시 간	소 요	주요 일정	장 소
[1일차] (4.18)	11:35~17:50		• 공항 영접 및 행사장 이동	
	15:00~17:00	120'	• 도의회 의장 접견	• 자스민홀(2층)
	17:00~18:30	90'	• 수덕사 문화탐방	• 수덕사
	18:30~20:00	90'	• 만찬(환영)	• 중국(제라늄홀), 일본(메리골드홀), 러시아(아이리스홀)
	20:00~20:30	30'	• 대표단 실무자 회의	• 아이비홀(1층)
	20:30~21:30	60'	• 주제발표 리허설	• 주니퍼홀(1층)
[2일차] (4.19)	07:00~08:20	80'	• 조찬 및 휴식	• 다빈홀(1층)
	08:25~09:25	60'	• 도의회 의장 접견	• 자스민홀(2층)
	09:30~10:20	50'	• 공예품 전시회 관람	• 주니퍼홀 옆(1층)
	10:20~10:40	20'	• 대표단과 도지사 등 상견례	• 다빈 VIP룸
	10:45~11:05	20'	• 축하공연	• 주니퍼홀(1층)
	11:10~11:50	40'	[개회식] • 참석자 소개(10) • 개회선언(5) • 개회사(5) • 환영사(5) • 축사(15)	• 주니퍼홀(1층)
	11:50~12:00	10'	이동	
	12:00~13:30	90'	• 오찬	• 로즈마리홀(2층)
	13:30~13:50	20'	[기조연설] • 전문가 연설	• 주니퍼홀(1층)
	13:50~14:30	40'	[주제발표] • 참가국 의장 연설①	• 주니퍼홀(1층)
	14:30~14:45	15'	• 휴식	
	14:45~15:45	60'	• 참가국 의장 연설②	• 주니퍼홀(1층)
	15:45~16:00	15'	• 휴식	
	16:00~16:50	50'	• 참가국 의장 연설③	• 주니퍼홀(1층)
	16:50~17:05	15'	• 휴식	
	17:05~17:25	20'	• 포럼 합의문 서명 • 차기 개최지 확정선포 • 차기 개최지 대표인사	• 주니퍼홀(1층)
	17:25~17:35	10'	[기념품 전달식] • 금동대향로+명패 포함	
	17:35~17:40	5'	기념촬영	• 주니퍼홀(1층)
	17:40		[폐회]	
	17:40~18:00	20'	• 휴식 및 자유시간	
18:00~20:00	120'	[환영 리셉션]	• 주니퍼홀(1층)	
[3일차] (4.20)	07:30~09:00	90'	• 조찬 및 휴식	• 다빈홀(1층)
	09:00~12:00	180'	• 현장견학(오전 일정) - 3개 코스 안내	※ 참가국별 별도계획
	12:00~14:00	120'	• 오찬(견학지 현지식)	
	14:00~		• 오후 현장 견학 • 공항이동(환송) 및 자유시간	

목 차

I. 기초연설 자료	1
II. 주제발표 자료	45
1. 아키타현	47
2. 강원도	53
3. 허베이성	59
4. 헤이룽장성	65
5. 지린성	71
6. 나라현	77
7. 니가타시	85
8. 프리모르스키주	93
9. 투브 아이막	101
10. 옌벤조선족자치주	107



1. 기초연설 자료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지방정부

구분	개최지	기간	주제	참가의회
제1회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	2009. 8.24-8.27	원동해권 지방의회의 지역경제 · 무역발전 및 두만강 국제협력개발 촉진 방면에 대한 역할	4개국 7개의회
제2회	일본 니가타시	2010 9.6-9.9	동북아시아 자구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사람, 물자의 교류 촉진	5개국 9개의회
제3회	한국 강원도	2011- 9.19-9.22	· GTI와 연계한 동북아 지방정부의 경제협력 방안 · 동북아지역의 미래와 지역개발 정책의 방향	4개국 9개의회
제4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2013. 9.8-9.11	협력을 위한 좋은 조건의 조성, 그리고 지역의 공동지원	4개국 5개의회
제5회	중국 지린성	2014. 10.14-10.16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기회 및 새로운 조치	5개국 9개의회
제6회	일본 니가타시	2015 9.2-9.4	문화교류로 구축하는 동북아시아의 협력관계	5개국 13개의회
제7회	한국 충청남도	2016. 4.18~4.20	 동북아시아 지역간 문화관광 교류 협력 방안	5개국 11개의회 러시아(프리모르스키주) 몽골(트브아이막) 중국(헤이룽장성, 지린성, 허베이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일본(아키타현, 나라현, 니가타시) 한국(강원도, 충청남도)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3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지방정부 [5개국 11개 의회]

러시아(프리모르스키주), 몽골(트브아이막)
중국(헤이룽장성, 지린성, 허베이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일본(아키타현, 나라현, 니가타시)
한국(강원도, 충청남도)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4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지방정부

몽골 트브아이막



면적 : 82,287 km²

인구 : 약 5.4만명

청사소재지 : 준모드



후스타이국립공원



만즈시르 사원



체체궁산



테를지국립공원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5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지방정부

러시아 프리모르스키주



면적 : 164,673km²

인구 : 약 193만명

청사소재지 : 블라디보스토크



보로실로프포대



비단산리바디스카야



슈이벤고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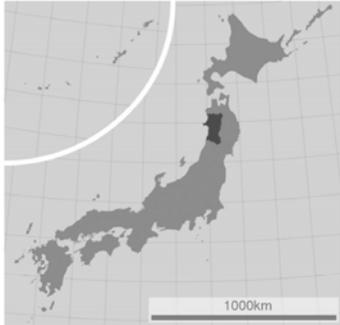


리바디아(리포비아안)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6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지방정부



일본 아키타현

면적 : 11,637km²

인구 : 약 103만명

청사소재지 : 아키타시



시라카미 산지



다자와호



가쿠노다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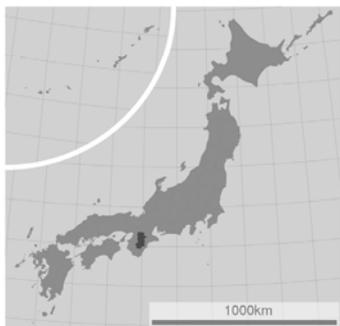


아오야기저택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7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지방정부



일본 나라현

면적 : 3,691km²

인구 : 약 137만명

청사소재지 : 나라시



도다이지 대불전



호류지



고후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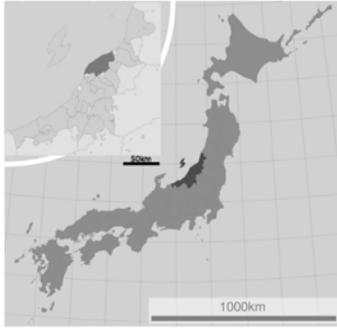


헤이조쿠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8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지방정부



일본 니가타시

면적 : 726km²

인구 : 약 81만명

청사소재지 : 주오구

소속현 : 니가타현



니가타 현정기념관



니가타 센베이왕국



레인보우타워



반다이교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9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지방정부



중국 허베이성

면적 : 187,992km²

인구 : 약 7,190만명

청사소재지 : 스자좡시



피서산장



외팔묘



백양전



백석산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10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지방정부



중국 헤이룽장성

면적 : 472,066km²

인구 : 약 3,815만명

청사소재지 : 하얼빈시



하얼빈 빙등제



태양도풍경구



경박호



오대련지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11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지방정부



중국 지린성

면적 : 191,326km²

인구 : 약 2,748만명

청사소재지 : 창춘시



위만황궁박물관



장영세기성



장춘세계조각공원



정월담국가중점관광명소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12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지방정부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

면적 : 43,713km²

인구 : 약 229만명

청사소재 지: 옌지시

소속성 : 지린성



류딩산관광풍경구(정각사)



육정산고분군



관동문화원



로리커호풍경구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13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지방정부



대한민국 강원도

면적 : 16,873km²

인구 : 약 156만명

청사소재지 : 춘천시



설악산



남이섬



경포대해수욕장



평창스키장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14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지방정부



대한민국 충청남도

면적 : 8,214km²,
인구 : 약 208만명
청사소재지 : 내포신도시

역사, 문화, 해양레저 등 관광중심지로 도약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2015년)



공산성



독립기념관



꽃지海水욕장



덕산온천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15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지방정부

[충남 자연관광자원]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자원 및 계룡산 등 산악자원 분포

- ▣ 태안해안, 계룡산 등 국립공원 2개소 위치
- ▣ 해수욕장 50개소(태안 30개소, 보령 17개소 등)



태안해안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대전海水욕장



칠갑산도립공원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16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지방정부

[충남 역사문화자원]

유네스코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기지시줄다리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보유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주-부여]

 공주 공산성 백제가 475년 도읍으로 정한 곳으로 중심성으로 불린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 왕산 시로 분포군 모두 730여 무덤행렬이 있다	 부여 관백의 유적, 부소산성 사비 시로 왕조 흥성, 대형 건물지, 관방, 저장 시설, 안뜰 등 왕궁 관련 시설이 발견
 부여 농산리 고분군 사비 시로 분포군으로 모두 77기가 있다	 부여 정림사지 백제 시대 가장 대표적 사찰로 5층 석탑(국보 98호)이 유명하다	 부여 나성 사비 도읍 건설을 위한 성곽, 백제의 발달된 토목기술을 엿볼 수 있다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17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지방정부

[충남 지역 축제]

역사, 문화, 예술, 관광특산물 등 다양한 축제 개최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18



참가4개국 출신 충남거주자 현황

[충남 외국인 현황(2014년 기준)]

구분	전국		충남		전국대비 충남 비중 (%)	
	인구(명)	비중(%)	인구(명)	비중(%)		
외국인 거주자수	1,091,531	100.0	54,568	100.0	5.0	
참여4개국 출신 거주 외국인	691,761	63.4	24,915	45.7	3.6	
몽골	17,334	1.6	776	1.4	4.5	
러시아	계	5,110	0.5	166	0.3	3.2
	러시아	4,365	0.4	127	0.2	2.9
	한국계 러시아	745	0.1	39	0.1	5.2
중국	계	546,746	50.1	22,767	41.7	4.2
	중국	171,174	15.7	7,723	14.2	4.5
	한국계 중국인	375,572	34.4	15,044	27.6	4.0
일본	122,571	11.2	1,206	2.2	1.0	

자료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4년도 출입국 통계연보, 2015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19

동북아 지방의회 문화관광교류협력 지향점

- 1 다른 국가와 지역에 대한 상호 이해
- 2 지역의 숨겨진 문화관광자원 발굴 개발 촉진
- 3 지역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
- 4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 및 지역문화발전 기여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20

동북아시아 문화관광 교류 확대

[2010년] 국적별 입국 및 출국자 수

(단위: 명)

송출국	목적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한국	한국	-	2,415,362	4,076,400	90,622	103,538
일본	한국	3,023,009	-	3,731,200	?	?
중국	한국	1,875,157	1,413,100	-	?	?
러시아	한국	150,730	?	?	-	?
몽골	한국	41,958	?	?	?	-

문화관광 교류 확대

[2015년] 국적별 입국 및 출국자 수

(단위: 명)

송출국	목적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한국	한국	-	4,002,052	4,444,400	135,676*	110,918
일본	한국	1,837,782	-	2,500,000	?	?
중국	한국	5,984,170	4,990,000	-	?	?
러시아	한국	188,106	?	?	-	?
몽골	한국	77,918	?	?	?	-

자료: 출입국통계, 한국관광공사, JNTO, 중국여유국
* 러시아를 목적으로 한 출국자는 2014년 기준임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21

주목해야 할 세계 문화관광 추세

[지속가능한 관광 대두]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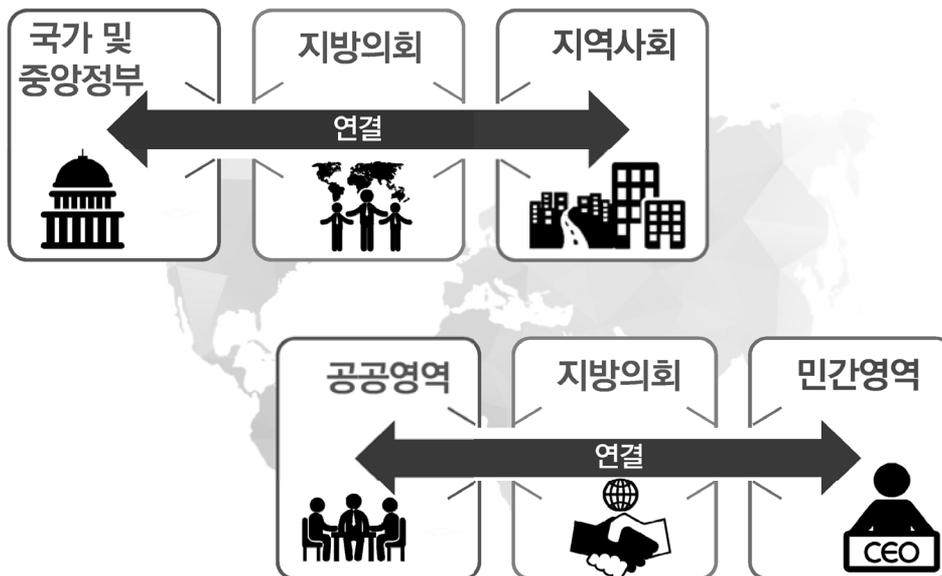
주목해야 할 세계 문화관광 추세

[ICT기반의 스마트관광 성장]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23

문화관광교류에서 지방의회의 역할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24

11개 지역 11개 공동사업 제안

목표 I 11개 지역 동북아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목표 II 세계화 시대 동북아 11개 지역 주민간 상호 이해

목표 III 지역 문화관광 산업 발전 및 인재 양성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25



동북아 문화관광 교류협력의 주요 과제

1. 지역 주민의 문화관광 교류 기회 확대



교류지역 주민 상호방문



주민 해외지역 문화 탐방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26



동북아 문화관광 교류협력의 주요 과제

2. 문화관광 관련 정책 담당자 및 종사자 상호 교류



관계 공무원 및 지방의원 교류



지역 관광 리더 교류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27



동북아 문화관광 교류협력의 주요 과제

3. 동북아시아 지역 문화관광 공동발전사업 추진



동북아 11개 지역 연계관광 상품 개발



11개지역 통합브랜드 개발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28

동북아 문화관광 교류협력의 주요 과제

4. 미래세대 청소년 교류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



대학생 배낭여행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29

동북아 문화관광 교류협력의 주요 과제

5. 지역 일상생활 관광



전통시장 관광



골목 관광



음식 관광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30



동북아 문화관광 교류협력의 주요 과제

6. 역사문화관광



유네스코 세계 유산



불교 사찰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31



동북아 문화관광 교류협력의 주요 과제

7. 지역 축제 연계 관광



지역특산물 축제



체험관광 축제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32



동북아 문화관광 교류협력의 주요 과제

8. 휴양·힐링·엔터테인먼트 연계관광



휴양 관광



엔터테인먼트 관광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33



동북아 문화관광 교류협력의 주요 과제

9. 농촌 및 산업관광



농촌 관광



산업 관광

제7회 동북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 2016 | 34



동북아 문화관광 교류협력의 주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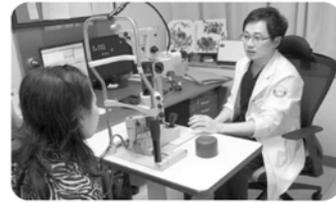
10. 각종 주제별 테마 관광



쇼핑 관광



건축 관광



의료 관광



동북아 문화관광 교류협력의 주요 과제

11. 민간교류 시범사업

※ 1년내 실현가능 사업



마을지도자 상호 방문 교류



11개 지역 상호교차 팸투어 시행



동북아 문화관광 교류협력 방안

충남연구원 원장 강 현 수

< 목 차 >

1. 머리말
2. 국제문화관광교류협력의 개념 및 영역
3. 동북아 문화관광교류협력의 여건 및 제약 요인
4. 동북아 문화관광교류 현황
5. 국제문화관광협력의 주요 이슈
6. 동북아 문화관광 교류협력의 주요 과제
7. 맺음말

1. 머리말

- 국제관광 협력은 국제관광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국제관광의 발전을 통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간의 공동노력을 의미하며, 각국의 정부 부문간, 민간부문간, 관련단체 간 등 국경을 넘어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로 주요 관광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구와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관광부문의 주요 국제기구인 세계관광기구(UNWTO), OECD 관광위원회, APEC 관광장관회의 등은 국제관광의 장애요인 제거,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여행객 안전 및 위기관리, 공동 마케팅, 국가간 관광관련 정보 공유, 관광인력의 교육 및



훈련 등 글로벌 관광현안에 대해 협의를 조성하거나, 또는 기구간 승인체계를 도입하여 기타 국제기구간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음

- 또한 2000년대 UN에서 설정한 새천년 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중 관광부문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저개발국 관광부문의 공적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등은 차세대 개발목표 (Post-2015)로 여전히 유효한 글로벌 현안임
 - 1992년 환경보전에 대한 리우선언은 2012년의 ‘Rio+20’ 계획에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인류공동의 대응 방향을 재확인하고 있음
- 국제관광 협력의 큰 흐름 속에서 동북아 (한-중-일-러) 국가가 아태지역의 경제블록으로 등장함과 동시에 국제관광목적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간 또는 지방자치 단체간의 국제 관광 교류협력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동북아 국가를 대표하는 한중일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으로 역사 문화, 문화예술, 청소년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 협력의 장애요인 제거와 동북아 국가간의 관광 교류 협력은 상호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많을 것으로 평가됨
- 그간 동북아 국가는 한중일 관광장관, 한-일 관광진흥협의회, 한-중 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관광 교류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또한 국제관광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동북아 지방정부간의 교류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8월 중국인 대상 복수비자 확대 등으로 한-중 관광교류 확대는 증대하여 왔으며, 2015년에는 한-중 상호 방문의 해 및 한-러 무비자 협정 등 동북아 국가간의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2. 국제문화관광 협력의 개념 및 영역

2.1. 국제문화관광 교류 협력의 개념

- 국제문화관광 교류협력은 국제관광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국제 관광의 발전을 통해 국가 상호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 노력이라 할 수 있음. 국제협력에 있어서 협력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정부와 국제기구 등 공공부문과 일반 민간기업과 비영리 민간단체 등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고, 다시 협력주체의 다수여부에 따라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제관광은 ‘국경을 기준으로 하는 물리적 기준과 관광객의 이동이라는 인적 기준, 국제관광을 둘러싼 사회·문화·경제·환경·정치적인 제 요소 및 현상,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제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종합현상’으로, ‘국제관광은 국제관광객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관광기업, 정부, 기타 관광관련기관 등 각 서비스요소의 활동과 이들이 국제관광객사회와 국제관광수용사회에 상호 작용적으로 미치는 제반사회영향을 포함하는 종합현상’으로서 정의될 수 있음¹⁾
- 한편, 교류는 활동의 범위나 형태나 내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모든 상호적 행위를 의미한다면, 협력은 상호 당사간의 합의를 하여 실천하는 행위로 상대적으로 한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정책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상호국가간의 협력사업으로 볼수 있음²⁾
- 국제협력은 국가간 및 국가와 국제기관간의 모든 유 무상 자본협력, 교역협력, 기술인력 협력, 사회문화협력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임. 국제협력은 원조 등에 비해 상호적이며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고 아울러 협력분야는 경제영역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까지 확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국제기구는 ‘조약에 입각하여 복수의 주권국가로 구성되어, 일정한 목적하에 국제법상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자체기관에 의하여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조직체’이며 (사전적 의미), 국제기구의 기능은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주권국가들로부터 정부 또는 비정부회원들 간의 동의하에 설립된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³⁾
-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관련 국제기구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자 관광관련 국제적인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 조성하고, 국가간 승인체계를 도입하거나 기타 국제기구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2.2. 국제관광 협력의 목표

- 국제관광 협력의 목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국제관광협력의 정치적 목표는 관광을 통하여 자국의 사정 및 문화를 널리

1) 김철용·이연택 (1996), 국제관광론, 21세기 한국연구재단.

2) 정정숙 (2004),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 21

3) 정정숙 (2004),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 26



알림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들에게 자국에 대하여 우호적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세계 각국은 관광을 통해 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지식을 촉진하고 다른 산업의 국가간 협력증진에 이용할 뿐 아니라 정치적 협력증진에도 활용 될 수 있음

〈 표-1 〉 국제관광협력의 목표

구 분	내 용
정치적 목표	국제적 홍보 및 국가간 협력강화 국가간 상호 이해의 증진
경제적 목표	외화획득 효과 고용 창출,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목표	삶의 질 향상, 국민의 문화 발전
환경적 목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 경제적 측면의 경우 관광산업이 복합 산업으로써 지역발전, 고용창출, 금융, 교통, 조세수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련업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관광활동은 직접적으로 관광소비지출로 인한 소득증대를 이끌어 낼 뿐 아니라, 외화 획득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함. 관광은 소득의 공간적 재분배와 낙후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의 수단이 될 수 있음
- 사회적 목표로는 관광은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간 서로의 생활 및 사고방식을 배우게 하는 모든 형태의 여행을 말하므로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환경적 목표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환경의 가치, 미래지향성, 형평성의 개념이 조화된 삶의 질이라는 공동의 결과물을 추구함. 국제관광정책의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국가간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상호 교류협력이 기반이 되어야 함

2.3. 국제관광 교류협력 영역

- 국제관광협력의 분야 및 대상으로 인적, 물적, 자본, 정보의 국제간 이동 자유화를 영역으로 볼때, 국제관광협력 협력분야별 주요 내용 크게 정보기술, 인적교류, 상품 개발, 투자개발 협력 등으로 구분할수 있음 (〈표-2〉 참조).

- 국제교류협력의 수단으로 자매결연, 협력네트워크, 협약체결, 시민 교육, 캠페인, 프로젝트 지원, 보조금 지원, 혜택과 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협력수단의 선택은 국가적 차원의 관광정책 목표, 정치적 성향 및 추진의지에 따라 다양화 될 수 있음

〈표-2〉 국제관광협력의 분야별 내용

협력분야	내 용
정보기술협력	- 관광데이터베이스 구축 - 관광협정체결 - 관광관련 기술 교환
인적교류협력	- 관광객 교류 - 관광투자 설명회 개최 - 관광상품설명회 개최
상품개발협력	- 지방특산물 판매 - 관광협력각구 설치 - 관광교역전 개최 - 관광연계상품 개발
투자개발협력	- 관광자본투자 - 관광환경 자원보호 - 관광자원개발 - 관광홍보물제작

자료: 박기홍 (1998), APEC 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동북아 문화관광 교류협력의 여건 및 제약 요인

3.1 교류협력의 여건

□ 동북아 관광시장 확대

-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2020년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관광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한·중·일·러 중심의 동북아 경제 블록의 등장과 관광시장이 확대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 세계관광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4% 이상으로 경제성장률을 앞서고 있으며, 서비스산업 분야의 개방화와 함께 관광산업은 그 자체로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아태지역의 빠른 경제발전, 국제항공교통의 개선으로 접근성 향상, 신규 항로의 지속적 개발, 공항수용시설의 확대 추진, 각국의 해외 여행 규제 (연령제한, 외화 소지액, 여행회수 등)의 완화로 동북아 관광 관광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동북아 발전의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는 동북아 및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연결고리를 통한 관광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어, 역내 관광목적지들의 공동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지리적 인접성 및 유사 문화권

- 동북아 지역은 한국, 일본, 북한, 중국의 동북지방, 러시아의 극동지역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국가간 상호 의존성은 불가피한 여건으로 역내국가간의 교류협력이 필요함.
- 특히 한중일은 문화적으로 유교 불교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일한 한자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동북아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 개방화 및 지역화 가속화

- 국제경제의 개방화 및 지역화의 가속화에 따른 관광환경 변화에 대해 국경을 넘나드는 관광부문의 투자 및 관광객 이동 촉진을 위한 장애요인 제거와 환경친화적인 관광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관광객의 안전 보호 문제 등이 국제 관광협력의 주요 논점으로 등장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관광시장 규모면에 뿐만 아니라 경제 중심지로 부각됨에 따라 동북아 중심 국가를 중심으로 관광협력체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 증대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외국의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깊게 하기 위해 각종 행사에 초대 및 친선교류 관계를 맺는 것임
- 동북아 지방정부간의 교류 협력이 증대함에 따라 지방정부차원에서 기능과 역할이 증대하고 있고, 지자체 단체장간의 관광진흥회의 개최와 정부차원의 관광장관회담 개최, 도시간 관광분야 인적교류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교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지방자치 단체간의 협력은 실질적인 효과가 개별 지역과 지역 주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국제교류 협력의 활성화가 요구됨

- 그간 지방정부간 관광교류협력분야는 관광교류전 및 심포지엄 개최, 청소년 교류, 지자체 자매도시 교류, 우호교류, 한-중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 및 공동 프로모션 전개 등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되어오고 있음
-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국제 관광 교류협력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협력 내용을 다양화 할 수 있으며, 협력의 효과가 지역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3.2. 동북아 문화관광교류의 제약 요인

□ 제도적 차이

- 일반적으로 국제관광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는 그 국가정부의 정치적 상황이나 정부, 경제적 여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국제관광의 장애요인은 무엇보다도 관광수용국 정부의 여러 가지 제약과 제한, 외국인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일례로 관광기반 시설의 미비, 인력자원 문제, 안전 문제, 항공협정 등의 분야에서 상호 입장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음

□ 문화적 공감대 미흡

- 동북아 지역의 국가간 문화적인 공감대 형성이 늦어져 각종 교류에 갈등과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상대에 대한 이해 증진에 있어 그 어느 대상보다 중요함. 동북아 지역내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관광의 영역은 역사 문화, 문화예술, 시민 생활 문화, 축제 문화 등 각각의 영역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법과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관광 교류가 요구됨

□ 느슨한 교류협력 체계

-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 한-러, 한-일 등 국가간에 관광부문의 국제교류 협력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오고 있으나, 상호 호혜적인 협력사업 발굴의 부족, 국가적 입장 및 제도적 차이, 실천적인 후속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낮아 느슨한 협력체계가 관광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국제교류의 한계점인 느슨한 국제협력체계를 효과적, 효율적 및 실천적으로 추진 되기 위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체 혹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공동협력이 필요함



□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 발굴 미흡

- 동북아 역내 관광시장의 확대 가능성 및 향후 잠재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국제 관광교류 협력이 필요하며, 지방차원에서 동북아 지역내 관광교류의 직접적인 혜택이 지방에 미치도록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협력 사업 발굴이 필요함
- 국가차원의 문제였던 국제관계도 지역차원에서 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되고 있으며, 관광 산업도 역내 국가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협력이 점점 일반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급변하는 세계관광시장의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 협력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4. 동북아 문화관광교류의 현황

4.1. 한중일 문화관광교류 현황

□ 한중일 역내 관광객 교류 규모

- 2014년 기준 동북아 지역의 핵심국가인 한중일 역내 관광교류 규모는 2,047만 명으로 2010년의 1,653만 명보다 23.8% 증가한 수준으로 확대
- 2014년 기준 한중일 3국간 관광객 송출 비중은, 한국이 약 693만 명으로 33.9%, 일본이 약 499만 명으로 24.4%, 중국은 약 853만 명으로 41.7% 가장 높은 아웃바운드를 보이고 있음
- 한중일 3국간 관광시장에서 중국의 관광객 송출 규모는 지난 5년간 159.6%가 증가한 반면 일본의 한중 국가내 아웃바운드는 2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2014년 기준 한중일 3국간 인바운드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은 약 840만 명, 일본은 516 만명, 중국은 689 만 명으로 나타남

〈표-3〉 한중일 3국간 역내 관광교류 규모 (2010년기준)

송출국 \ 목적지	한국	일본	중국	합계	송출 비중 (%)
한국	-	2,415,362	4,076,400	6,491,762	39.3
일본	3,023,009	-	3,731,200	6,754,209	40.8
중국	1,875,157	1,413,100	-	3,288,257	19.9
합계	4,898,166	3,828,462	7,807,600	16,534,228	

〈표-4〉 한중일 3국간 역내 관광교류 규모 (2014년기준)

송출국 \ 목적지	한국	일본	중국	합계	2010년대비 증감률(%)	송출 비중 (%)
한국	-	2,755,313	4,181,800	6,937,113	6.9	33.9
일본	2,280,434	-	2,717,600	4,998,034	-26.0	24.4
중국	6,126,865	2,409,200	-	8,536,065	159.6	41.7
합계	8,407,299	5,164,513	6,899,400	20,471,212	23.8	

자료: 한국관광공사 (2015, 8), 2014 방한관광시장 분석

4.2. 문화관광 교류협력의 논의 사항

□ 교류협력의 개요

- 한·중·일 정상은 3국간 관광확대를 2006년 제1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6회의를 개최하여, 한·중·일 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과 더불어 역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3국의 협력체계 구축 및 관광교류범위의 확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 하지만 매년 개최되던 한중일 3국의 관광장관회의는 2012년 중국의 불참통보로 무기 연기되어 현재까지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는 1995년에 발족된 ‘한·중관광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중국과 관광교류 협력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1986년 이래 ‘한-일관광진흥협의회’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광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정부 차원에서 동북아 국가의 지자체교류대회, 자매도시 교류사업 등을 통해



국가간에 협력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제발전과 동북아지역 협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음

- 민간차원에서는 ‘한·중·일 관광포럼’을 통해 한·중·일 3국 정부관계자 및 관광정책 연구기관 전문가, 민간 관광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여 민간 관광 교류협력 기반 구축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음
- 한·중·일 역내 시장에서 관광교류 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관광협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역외시장을 겨냥한 공동 관광상품 개발 및 대응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그간의 한중일 문화관광협력의 논의사항

- 관광교류 확대의 제약요인 개선: 한중일 3국은 상호간 비자 및 입국수속 간소화, 관광객 방문 편의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 (예, 중국인 개인관광객 비자서류 대폭 간소화(2009),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2008), 중국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시행(2007))
-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관광안내 표시의 국제표준화,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관광정보제공 서비스모델 개발 논의
- 청소년교류, 문화스포츠교류, 자매 도시교류: 수학여행을 시작으로 한 청소년교류, 문화스포츠교류, 자매우호도시체결, 그 외의 방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활용한 관광교류 촉진에 상호 협력
- 민간단체 간 교류: 관광관계 민간단체 조직으로 ‘3국간 교류 교육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장관회의 주제와 관련한 의제에 대한 의견교환 실시 후 실행에 옮김. 한중연해지역도시 관광포럼, 한중일 민간관광포럼, 여행업간의 업무제휴 체결 등
- 공동 상품개발 프로모션: 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한중일 연계 크루즈상품의 확충과 각국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등의 기획에 협력하고, 3국 역외 지역의 관광박람회에서 공동프로모션 등 추진
- 관광교류 영역 확대: 산업관광 수요확대에 대한 공동대처 지역간 관광협력교류 메커니즘 구축을 장려. 3국은 의료, 스포츠, 문화 등과 관련된 관광자원 개발 및 이용 촉진에 대해 논의
- 관광분야에 대한 상호간 직접투자: 관광개발에 관한 정보교환, 투자설명회 개최, 참석 등 관광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직접투자 확대에 관한 협력을 논의함
-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 자연재해, 기후변화에 따른 관광부문의 영향 및 대응방안 등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보교류에

협력 논의

- 다국간 관광국제기구 조직 활용: 세계관광기구(UNWTO), ASEAN+3,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 등 다국간 협력과 지역협력 국제관광 기구 활용. 한중일 정상회의, T20 관광장관회의, 한중일 청소년교육관광위원회, APEC 관광장관회의 등 다자간 기구 및 교류활동을 통하여 관광협력을 강화를 논의함
- MICE 산업 활성화: 3국간 관광교류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이벤트 개최와 동시에 대규모 스포츠이벤트, 박람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모객과 한중일 각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관광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개최국은 상호 방문을 촉진함
- 관광인력육성: 관광관련 사업자간 제휴, 교류 및 해외연수 실시 등을 통하여 국제 관광분야 인력 육성을 도모. 한중일 3국은 업계종사자의 교류와 해외연수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관광관련 전문교육 및 인적교류 협력전개
- 관광통계 정보 교환: 관광통계를 개선하고, UNWTO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회의의 관광동향에 맞추어 3국간 사무적 협의 추진
- 환경보존: 관광과 환경보호라는 당면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기후변화, 자연재해 예방 등에 관한 관련정보 상호교환 및 경험 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
-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응: 국은 자연재해, 전염병 등 국제관광교류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에서 정보공유를 통한 시장회복 도모 등 공동 대응협력을 강화 논의
- 관광의 정보화(공통IC카드): 관광교류활성화를 위한 교통, 숙박, 음식 등 관광산업 부문에서 국제상호 이용가능 한중일 3국간 제휴 관광객용 IC카드 결제시스템의 단계적인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에 논의
- 관광객 안전관리: 한중일 3국은 안전관리 및 응급보호처치 시스템을 정립하고 응급상황 대응책 및 관련법규를 확립함으로써 안전관광을 위한 협력을 강화를 논의

5. 국제문화관광협력의 주요 이슈

- 세계관광기구(UNWTO), UNDP, OECD 관광위원회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APEC) 등 관광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관광 협력의 주요 이슈별 요약함

□ 국가간 출입국 간소화

- 세계화로 국가간 자본 및 인력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관광이 경제·사회·문화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으로 인식·확산됨과 함께 관광은 국가간 통상의 한분야로 간주되고 있음. 대부분 국가의 관광정책의 목표가 외래 관광객 유치 확보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으며, 외래객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국경통과의 장애요인이 제거, 항공자유화(Open Sky) 및 비자발급 개선 등의 국가간의 협력, 다자간의 협력이 국제관광 부문에서 협력 현안이 되고 있음.

- 국제관광의 다변화로 우리나라는 신흥관광시장 개척을 위해 비자제도 개선 및 항공 좌석수 확보 등을 위한 항공협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자연생태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 국제적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자연 친화, 녹색 관광 등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새천년 개발목표(MDGs)와 Rio+20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글로벌 이슈임. 기후 변화에 따른 관광부문의 영향은 관광사업체 환경부담금의 증가는 여행객의 여행 비용 증대 및 관광수요 감소로 인한 관광사업체의 위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관광활동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산화탄소 감소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광산업의 성장 전망으로 볼 때 관광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빈곤 감소를 위한 관광 ODA 국제협력

- UN의 새천년개발목표 중에 하나인 빈곤퇴치는 관광 ODA를 통해 저개발국가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다. 관광산업은 높은 고용창출 효과와 저개발국가의 외화 획득원으로 빈곤 감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우리나라 관광부문의 ODA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관광공무원 대상 교육연수가 주요 사업이며, 무상원조의 ODA 사업의 비중은 높지 않은 편임. 관광 ODA를 통한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방향은 UNWTO, OECD 등 관광 ODA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관광 ODA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지식공유와 관광ODA 사업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국내 ODA 관련 기관인 KOICA, KDI,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가 요구됨

□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및 위기관리 대응

- 자연재해, 테러, 질병 등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불확실한 관광환경에 직면하게 되면서 국제관광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재해 및 질병은 관광객의 안전 및 안정에 위협을 줄 뿐 아니라 관광목적지의 관광산업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03년 사스발생과 이라크 전쟁, 2004년 동남아시아 지진 및 쓰나미해일, 2005년 발리와 영국의 폭탄테러, 조류 독감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로 인해 관광부문에서 여행자 보호 및 위기관리에 대한 국제협력의 현안이 되고 있음
- 2011년 동일본 지진은 자연재해는 국제관광의 위협 요소로 동북아지역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관광관련 국제기구인 UNWTO, OECD, APEC 등에서 여행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안전 관련 법규 마련, 여행자보호위원회 구성, 국가간 긴급 연락체계 구축 등의 국제관광협력체계 구축에 노력이 필요할 것임. 동북아 지역 또한 자연재해, 질병, 국가 간의 영토 분쟁, 종교 분쟁, 이념 대립 등 불확실한 세계정세에 대한 관광부문에서 대응 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광인력 교류 협력

- 관광서비스업의 개방화와 병행하여 국가간 관광인력의 이동에 대해서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과정에서 주요 논점으로 등장됨. 관광종사자의 국가간 이동은 필수이기 때문에 국가간 관광종사자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턴쉽의 형식과 과정도 국가간의 인력교류 협력에서 국제화의 폭을 넓혀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제관광기구의 역할 중에 하나인 관광전문가 교육 프로그램개발, 국제관광기구 중 교육 전문기관 간의 정부의 지원과 함께 네트워크 구축망에서 국가 간에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짐

□ 관광 IT 산업의 선도

- 정보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의 영향은 관광안내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 기술진보의 영향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관광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 또는 취득이 가능하며 점차적으로 지구의 어느 곳이든 국경 없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IT산업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관광교역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관광기구가 개최하는 세미나 혹은 컨퍼런스에서 정보기술의 관광부문에 적용에 대한 회원국간에 정보 공유를 제공할 수 있음



□ 관광통계 개선의 협력과 관광지식 공유

- 관광부문 산업체의 중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산업정책에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관광부문의 통계개선 작업이 OECD 관광위원회와 UNWTO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오고 있음. UNWTO는 관광통계 및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개발을 우선 연구 사업으로 인식하고 회원국의 그간의 사례연구를 통한 지식과 관련 정보교환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음
- 동북아 국가에서도 관광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관광위성계정 개발이 필요하며, 관광통계는 단기적인 과제가 아닌 장기적인 연구영역이라는 점에서 동북아 국가간의 연구개발(R&D)이 요구됨. 우리나라는 관광부문에서 지식경쟁력 강화 및 지식중심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서 관광통계 부문에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6. 동북아 문화관광 교류협력의 주요 과제

6.1 기본 방향

□ 교류 협력의 장애 요인 제거 및 문화적 공감대 형성

- 동북아 문화관광교류에 작용하는 장애요인(출입국 편의성, 비자문제, 안전문제 등)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함
- 동북아 국가간의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각국의 문화와 전통에서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는 문화 간의 접촉을 위한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 상호 호혜 사업의 지속적 발굴

- 협력의 지속성은 공동의 이익이 실현될 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관광 교류 협력에서 상호 호혜적인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중요함
- 국제관광객 유치에 있어 국가간 호혜적인 측면의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협력을 도모함

□ 실현 가능한 교류 협력 사업 선정

- 개별 국가의 활용가능한 관광 협력 역량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

- 또한 기존 국제협력에 있어 느슨한 협력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협약된 내용 및 선언 내용에 대해서는 실천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협력 주체는 교류협력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공동 재원 조성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6.2 주요 추진 과제

1) 관광객 이동의 편리성 개선

- 동북아 지역 관광교류가 원활해지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관광객 이동에 있어서의 편리함과 안전성임
- 출입국 절차는 국경을 넘어 관광목적지에 접근하는 과정으로 양국 정부가 관광객에게 취하는 제반조치로 사증발급의 규제 완화, 출입국 수속 대기 시간 단축이 포함됨
- 동북아 역내 국가간 비자문제는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으나, 여행자 비자 발급의 제한문제(개별비자, 복수비자, 예치금제도 등)는 상호 개선하는데 협력하여야 함

2) 관광객 안전성 증진

- 관광목적지에서의 안전은 관광행위자의 여유 및 즐거움과 직결되므로 관광매력도를 결정짓고, 관광만족도와 재방문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
- 국내외 관광지에서의 사고, 재해 등의 발생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해외에서의 사건사고에 대한 공동대응 및 안전대책(테러, 방화, 사고, 자연재해 등)의 공동 수립이 요구됨
- 긴급공동연락체계 구축과 안전 안내 책자의 공동 발간으로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 잠재관광객에게 안전한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함

3) 관광인프라 개선

- 관광인프라는 관광객의 관광활동에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로서, 숙박, 식음, 안내체계 등을 통칭하고 있음, 그 중 안내체계는 개별관광객의 관광활동 편의를 증진



시키는 역할을 함.

- 지역차원에서 동북아 역내 관광객 편의증진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요 관광지 및 관광시설, 교통시설 등에 안내 표지판을 확충함
- 관광객의 지출측면에서 결제상의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 및 관광지출의 결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카드 실현을 위한 제도, 규제 부문의 선결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사업 수행, 시범사업 선정 및 피드백을 통해 통합결제시스템을 현실화시켜나감

4) 문화 관광 상품개발 및 공동 마케팅

□ 역사 문화 주제 문화관광 프로그램

- 한중일은 지리적 인접성, 역사 문화적 공감대, 동양적 정서와 유대감으로 공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적합한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화 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관광상품의 공동 프로모션으로 세계 관광시장에 진입
- 과거 역사에서 국가 상호간에 평화공존과 이해증진을 위해 이했던 인물들을 공동으로 발굴하여 상호기념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상호 방문의 기회를 증대하는 작업을 추진
- 동북아 국가의 지역역사, 문화, 예술, 연예오락, 음식, 레저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테마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역내외 관광객에게 공동 마케팅 활동 전개함
- 특히 동북아 국가들의 소유하고 있어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공동 프로모션과 상호 교류 행사 등을 통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진행

□ 공연예술 공동 제작

- 동북아 국가내 음악제 혹은 미술제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하여 국가별로 순회 공연하는 문화관광 상품을 모색할 수 있음.
- 각국의 문화예술계 및 문화예술동호인들과 협력하여 상호 만남의 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역축제의 교류 활성화

- 동북아 (한-중-일-러-몽)지역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들을 각각의 성격 및 특징별로 분류하여 상호 방문 혹은 초청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관광을 촉진할 수 있음

- 개별 국가는 자국의 대표 축제를 선정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차원에서 축제상호 방문의 해를 설정하여 지역간 문화관광교류는 증대할 필요가 있음

□ 문화산업의 장르별 관광상품화

- 동북아 지역내 대중문화와 관련된 문화산업영역에서 국가 상호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 할 필요가 있음. 문화산업 교류 전시회를 동북아 국가내 돌아가면서 공동으로 필요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영상물컨텐츠시장, 영화제, 게임프로그램시장, 출판 관련 박람회 등 문화산업 관련 각종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상호간에 동음이 되는 각종 정보를 관련 사업자 및 해당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간 관광교류활성화에 긍정적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동북아 '문화관광 골든 10선' 사업 발굴

- 동북아 지역 간 및 역외에서의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동북아관광골든루트 10선' 사업을 추진하고, 각국의 관광당국 및 관련 기관은 역외 시장을 대상으로 한 공동 홍보 및 다언어(한중일 및 영어)에 의한 관광안내 표기 등을 추진
- 동양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교문화자원, 자연경관자원, 대중문화자원, 전통생활문화 등 동북아 국가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함
 - 불교문화자원 : 주요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 자연경관자원 : 수려한 자연환경, 세계자연유산 등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 대중문화자원 : 대중문화 아이콘을 활용한 이벤트 및 관광 프로그램
 - 전통생활문화 : 식문화(궁중음식, 전통음식, 다도 등), 주거문화(전통가옥 등), 세시 풍속 등을 소재로 한중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

5) 청소년 관광교류 활성화

- 청소년 대상 관광 및 문화교류는 미래 외국관광객의 창출 및 지역간 우호증진에 큰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으며, 또한 관광교류를 통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은 청소년의 사고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



- 청소년 관광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기금 지원이 필요함. 동북아를 비롯한 외국 청소년들이 국내에 와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청소년 여행촌을 개발하여 여행을 통한 동북아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촉진

6) 동북아 크루즈 관광 활성화

- 크루즈 관광은 내륙과 해양의 관광자원을 연계시킴으로써 관광활동 공간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새로운 관광활동 유형을 창출할 수 있으며, 동북아 지역은 세계크루즈 관광시장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크루즈관광은 국가간 혹은 지방정부간의 국제협력을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 다자간의공동협력이 필요하며, 크루즈 관광의 특성상 이용객은 수차례의 출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적인 지원과 국가간 협력이 필요함
- 동북아 국가간 (한-중-일-러) 근접성과 매력도가 높은 크루즈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기항지의 지자체 및 관련단체와 협조를 통하여 매력적이며 효율성 있는 세부사업을 계획함

7) 공동 정보교류 및 연구 사업

- 관광지식을 서로 교류 및 확대하기 위한 각종 학술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추진하고, '동북아관광연구센터'를 건립하여 동북아 국가의 공동현안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를 수행함
- 관광자원인 기후, 자연, 천연 자원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조사하여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과 현안을 분석하며, 향후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 방향을 모색함
-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관광통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통합 관광통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

8)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협력

□ 동북아 관광 환경 보호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란, 관광산업의 성장에서 발생하는 혜택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자연 환경과 지역 문화에 충격을 적게

- 주면서 지역을 위한 소득과 고용을 창출시키는 것을 돕는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관광을 통한 빈곤퇴치의 노력, 민감한 생태지역 보전을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함
- 공동 관광개발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지표 개발과 공동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공동관광개발에 대한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

□ 책임관광 협력

- 대규모의 빠른 산업 성장은 ‘대량 관광(Mass Tourism)’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거주지와 독특한 문화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광 목적지 및 산업으로서의 관광을 보호하고자 함
- 세계적인 지구 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위험과 재앙, 환경과 생활 취약층에 대한 보호를 자각한 주체들이 관광산업 관련자와 관광소비자들의 책임을 자극하고 공감함
- 동북아 역내 관광사업체의 의무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환경적 자각에 기반한 사업의 추구(관광지의 환경보호)와 최소한의 자원 사용에 의한 자원 보존, 자선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피고용인에 대한 근무 및 복지환경 등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공동 모색하고 실천하며, 우수사례에 대한 공동 시상 등을 통해 책임관광(Responsible Tourism)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
- 관광소비자의 인식의 전환, 관광업계의 책임감과 명성 및 활동 모니터링 등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프로그램화하고 추진함
- 관광산업에 대한 윤리적·환경적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주요 관광지에서 물품구입과 관광업체 선택에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9) 공정관광 협력

- 관광교류의 품격 제고와 질적 내실을 추구하기 위한 ‘동북아 공정관광 이니셔티브’ 체결을 추진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함
- ‘Fair Trade in Tourism’의 원칙하에 저가덤핑 상품, 관광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캠페인 추진 등 공동의 노력과 협력
- 국가 간 관광교류 및 관광기업 간 거래에서 공정관광이 추구하는 원칙과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러한 원칙을 하부 단위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10) 교류 협력주체간의 역할 강화

- 동북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는 자매·우호도시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일회성의 방문행사가 많아 보다 구체적이고 양국 특성을 활용한 장기적 사업의 개발이 필요함
- 또한 동북아 역내 국가간 공동상품개발을 위한 실무위원회(예, 한국여행업협회, 일본여행업협회, 중국여유협회)를 구성하고, 온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사업을 공동 추진함
- 여행업체간 협업의 형태로는 산업포럼, 팸투어, 각국 여행사의 네트워크와 여행상품의 교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기존 상품의 수준 향상, 새로운 관광흐름에 맞는 공동 상품의 개발, 관광객 수요에 초점을 맞춘 상품의 개발 및 공동 마케팅 활동이 필요함

7. 맺음말

- 관광관련 국제협력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서로 협력체제하에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나감과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안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국제관광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동북아 지역 관광교류와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관광분야 총괄책임자의 지속적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동북아 지방간 연락사무소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적 조직이 필요함
- 동북아 역외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호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민-관 파트너십 구축, 국가간 양자 혹은 다자간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제문화관광 협력사업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적 사업의 특성이 있으며, 이를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실행하여 나가기 위하여 관광협력사업 추진의 실효성 및 적합성, 공동기금의 효율성,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 지역내 지방정부 및 업계의 참여조성 등 민간부문의 협력과 지자체 참여가 요구되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협력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실천적이며 효과적인

- 협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국제관광기구와의 협력에 있어서 부처별 전문적 역할분담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 등의 통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연구기관은 연구협력 부문에서 전문영역을 넓힘으로써 국제지명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 관광부문의 지식 창출의 중심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 지역내 지방정부는 중앙행정기관, 국제관광기구,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업체, 지역문화원, 외교 통상부 등 국제협력 관련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관광협력의 성과 및 파급효과를 최대화시켜야 할 것임

II. 주제발표 자료



1. 아키타현



place your text here

문화와 관광에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아키타현의회의장 시부야 마사토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키타현 의회 의장 시부야 마사토시입니다.

먼저, 금회 포럼개최에 즈음하여 많은 힘을 써주신 한국 충청남도 의회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개최를 위해 애를 써 주신 각 지구, 각 지방 정부의 모든 분에게도 제각각 열렬한 환영을 하여 주신 것에 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아키타 현을 소개한 영상을 보여 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아키타 현은 일본의 북동부, 동경에서 보면 북으로 약 450킬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키타의 매력은, 사계절 철철이 볼 수 있는 풍부한 자연의 풍경입니다. 봄에는 벚꽃, 여름은 초록, 가을은 홍엽, 그리고 겨울은 눈과 수빙, 정월 설 맞이 행사, 온천과 토속요리도 마음껏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키타에 꼭 놀러 오세요.

이번 테마는 「동북아시아 지구에 있어서의 문화와 관광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입니다. 지금 일본 국내는 대 도시를 중심으로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가 역대 최고의 기세로 증가하고 있고 나라에서는 2020년의 동경 올림픽·파라림픽 개최시의 방일 외국인여행자수, 연간 3,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키타를 시작으로 하는 지방은 모두 손님유치에 고전하고 있는 것이 실태이고 그것이 공통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본을 방문 하는 리피트의 비율도 증가하고 아키타 등의 지방도시에 발을 뻗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써서 아키타에 오게 할 수 있을지 아키타의 매력 발산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지금의 매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관광자원의 개발과 테마 성, 스토리 성이 있는 아키타만의 독특한 여행을 국내외에 폭넓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5년의 대책은 아키타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 됩니다.

먼저, 아키타 현의 관광객 유치에 관한 대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에 관해서 입니다만, 2001년에 아키타 공항과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국제 정기편이 취항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편은 지금까지 40만명을 넘는 일한양국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관광이나 비즈니스는 물론, 문화와 스포츠 등 폭 넓은 분야에서의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이와테 현과 연계해서 서울 사무소를 개설 한 것 이외, 2008년에는 현지 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설치하는 등으로 한국에서의 관광객 유치를 향한 체제강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 가을 드라마 「아이리스」가 한국에서 대 히트를 하여 그 로케현장이 되었던 아키타현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로케현장 순례로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아키타 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의 일본인 여행자 수는 엔의 환율이 낮아짐 등에 의해 감소경향으로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아키타현도 국제 정기 편은 작년 12월부터 금년의 10월까지 운휴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차터(charter, 전세기)편의 운항과 타 공항을 활용한 인 바운드 손님유치 등 관계기관과 연대하면서 더 많은 이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중국에 관해서는 현재 중국어 판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 향후 중국 국내에 현지 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배치하여 현지의 항공회사와 여행 에이전트(agent)에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차터(charter)편 유치 등의 본격적인 추진, 중국과 한층 더 밀접한 관광교류를 시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관민의 조직인 동북 관광 추진 기구에서는 작년도 동북의 사계절과 역사문화,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광역 관광 주유 루트로서 「일본의 오키노 인(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사원 및 건물)·동북 탐방 루트」가 나라의 인정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향후 손님유치를 겨냥한 대책을 본격화 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구의 사업과도 긴밀하게 연대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유객확대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 외에 러시아 연해 지방과는 작년 우호 협정 체결 5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사와 저를 비롯하여 현 내의 젊은 경영자와 함께 우라지오(구. 블라디보스톡)와 하바롭스크 그리고 이루크추크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지의 기업가들과도 의견 교환을 했고 향후도 관광 문화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깊은 교류를 가질 것을 서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교류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키타현 에서는 2011년에 문화의 힘으로 아키타를 활기차게 하게 하기 위해 「아키타문화 르네상스 선언」을 선포하여 지역의 문화력을 높이고, 그 문화력으로 지역을 활기차게 해 나가는 대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아키타 문화 진흥 비전」을 책정하여 해외와의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국제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아키타 현의 문화를 홍보하는 것 이외에 국제교류를 통한 차세대 후계자 육성과 문화 교류의 확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키타현은 이시이바쿠, 히지카타타츠미라고 하는 세계적인 평가가 높은 무용·무용가를 배출했고 올 10월에는 아키타 현에서「국제무용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 페스티벌에는 한국 모던댄스 컴퍼니나 한국의 전통무용단을 초대해서 현 내의 무용단과 함께 연기를 피로할 예정이고 무용·무도를 통한 아키타 만의 독특한 문화를 국내외에 발산해 나가고 싶은 의도입니다.

또한 2017년 4월에는 불꽃놀이 대회로 유명한 본 현의 다이센시에서 국제 불꽃놀이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세계 불꽃놀이 관계자를 불러, 강연, 연수, 세계 불꽃 쏘아 올리기 등을 통해 불꽃놀이 문화의 교류의 장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 향후도 지속적으로 국제 문화 교류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년, 아키타 현 내에서 모글 월드컵 등의 국제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관광과 문화를 연계시키는 대책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회에 맞추어서 「관광 투어」에 선수·코치, 미디어 관계자를 초대하여 온천, 아키타 견(아키타 개) 식문화 등의 향토자원을 마음껏 즐기게 하고, 마음을 느긋하게 하는 전통 문화 체험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역사에 접하는 체험 형 관광 등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관과 민, 지역이 연대할 대책이 요구되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로서도 이러한 일들의 관광 진흥과 국제 문화 교류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이 되지만, 오늘 여기에 모이신 내빈 여러분의 활약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강 원 도



동북아시아 문화·관광 교류협력에 관하여

강원도회의의장 김 시 성

행복한 변화를 꿈꾸는 대한민국 충청남도에서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또한 여러 의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화교류는 주로 미국과 구주지역을 주 대상으로 해 왔고, 아시아 지역도 한정된 몇몇 국가에 집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와의 문화교류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동북아시아 문화교류는 이러한 세계화 속에서 국가 혹은 지역 간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아시아적 가치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정립하고,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문화적 연대성을 구축하고자 추진되어 왔습니다. 바야흐로 동북아시아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문화와 관광 협력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최근 세계화 추세와 병행하여 유럽의 EU, 미주의 NAFTA 등 권역별 블록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긴장, 저밀도의 영역에 속하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의 동북아의 협력 강화는 동북아의 공동번영에 커다란 기여와 전기가 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국가는 각자 유구한 역사와 자랑스러운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발전해 왔으며,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아시아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활발한 문화교류를 해 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진일보(進一步)하여 아시아를 넘어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새로운 동아시아적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동서 문명이 실크로드로 이어지면서 농경



문화와 유목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명이 창조 되었듯이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문명이 탄생되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서로의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열린 마음으로 교류하면, 자국의 문화예술을 한 층 더 풍성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동북아 문화권이라는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근접성에 의해 인적 교류가 크고, 또한 상호협력에 의해 발전, 성숙해 갈 수 있는 이웃들이라고 봅니다. 동북아시아 문화교류는 각기 고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에 기반 한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문화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근대 이후 수백 년 간 지속되어온 서구중심 가치체계가 아시아와 세계가 공동의 번영을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우선 아시아 문화관광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동북아시아권 국가들과의 관광교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등을 통해 인적교류를 넓히고, 이와 더불어 서울 등 수도권에 머무는 외국인 관광객이 더 쉽고 편하게 강원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K Travel 버스를 운영하여 강원도의 대표 관광지인 강릉, 평창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해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크루즈 연계 관광, 세계 유일의 분단현실인 DMZ 등의 근현대 유산자원 관광 콘텐츠 등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잠재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강원도는 지역의 정체성과 창의성을 갖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지역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도시로 거듭 날것입니다. 아울러,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광협력은 문화협력과 함께 했을 때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하나 된 열정’이라는 주제를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림픽이 스포츠 행사이기도 하지만, 문화행사이기도 하기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동북아시아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때문입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0 도쿄 하계올림픽과 이어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까지 3개국에서 개최되는 메가 이벤트

(Mega Event)가 동북아의 문화적 저력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행사 때마다 주변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독자적 경험이 담긴 문화행사와 이를 역외 관광 증진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계획,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와 스포츠는 관광산업의 핵심 자원이며, 동시에 관광은 문화와 사람이 흐르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문화-스포츠-관광 분야에 있어서 모두 함께 동북아 권역 단위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국외 여행의 70%가 근거리 여행인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동북아시아권을 단일한 역내 관광권으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역내 관광 활성화는 상호간 문화이해의 증대와 신뢰 증진이라는 선순환은 물론, 동북아 공동 관광브랜드 형성, 유럽의 u-rail pass와 같은 단일 티켓 개발 등 이 지역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진흥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문화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상대를 진솔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서로 가슴을 열고 소통할 때 공동발전과 번영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 문화교류에서 실현되는 상대에 대한 관용과 이해는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고긴장, 고밀도 영역에서의 크나큰 협력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동북아시아가 새로운 문화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면, 문화와 문명의 역사가 오랜 만큼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을지 모를 편견과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창조해 낸 공존, 그 최선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동북아시아대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숙명입니다. 21세기 동북아시아 국가 공동의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미래상을 위해 따뜻한 친구의 손길로 서로를 아껴 나갑니다.

3. 허베이성



place your text here

제7기 동북아 지역 지방입법기관 포럼에서의 발언 자료

허베이성 인대 상무위원회 연구실주임 왕진평(王振平)

존경하는 김기영(金奇泳)의장님과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충청남도에서 개최한 “동북아 지역 지방의회 의장 포럼”에 참석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김기영의장님과 충청남도의회에서 세심한 준비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허베이성 문화관광현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허베이성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자연지형을 모두 갖추고 있는 성입니다.

허베이성을 기(冀)라고 약칭합니다. 허베이성은 중국북부의 중요한 연해 성으로 중위도 유럽과 아시아대륙의 동쪽, 화북평원과 내몽골고원에 걸쳐 있습니다. 안쪽으론 북경과 천진을 둘러싸고, 바깥쪽으로는 발해에 임하여 있으며 지형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총 면적은 18.8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중국 국내에 유일하게 고원, 산지, 평원, 호수와 해안을 모두 갖춘 성입니다. 허베이성은 발해를 둘러싼 핵심지역이고, 487킬로미터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상(坝上)고원은 내몽골고원의 일부이며 평균 해발은 1,200 - 1,500미터로 성 전체 면적의 8.5%를 차지합니다. 연산과 태항산지(구릉과 분지 포함)의 해발은 보통 2,000미터이하로 성 전체 면적의 48.1% 차지합니다. 허베이평원은 화북대평원의 일부로서 해발은 일반적으로 50미터이하로, 성 전체 면적의 43.4%를 차지합니다. 성내의 전체적인 기후조건이 비교적 좋습니다. 온도, 햇빛, 열량, 강우 등의 충분한 조건으로 인해 다양한 농작물과 과일을 재배하는데 유리합니다.

둘째, 허베이성이 갖고 있는 문화재량은 전국의 제3위입니다.

허베이성은 중화 문명의 발상지의 하나로서 오랜 역사는 허베이에 많은 명승고적을



남겼습니다. 허베이성의 문화재는 수량이 많고 시간 간격이 크고 종류도 다양하고, 정품이 많음 등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성에는 이동 불가능한 문화재가 총 33,943점 있고 그 중 전국 중점 문물보호기관은 278점으로 전국의 제3위입니다. 성급이상의 문물 보호단위가 930점에 달하여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베이성 양웬니허완 유적군락에는 200만 년전부터 지금까지, 7,500년 동안 다른 시기의 고대 인류의 문화 유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류기원과 변화 발전의 전 과정을 거의 다 기록했습니다. 허베이성은 고대 건축물, 고대유적지, 고묘지, 석굴사찰 및 석각, 근 현대 중요 사적지 및 대표적인 건축물 등 다양한 문물 유형을 갖고 있다. 허베이성은 대량의 정품 문물이 있다, 세계적으로 제일 오래 된 어깨를 열어 놓은 아치형 돌다리—조주교와 중국에서 제일 높은 정주탑이 있습니다. 그밖에, 장신궁등, 금루옥의, 쌍익신수, 15연잔등 등 우수문물도 있으므로 옛사람의 뛰어난 기예와 지혜를 보여주었다. 허베이성은 만리장성, 피서산장 및 주위 사묘, 청동릉과 청서릉, 대운하등 4개의 세계문화유적을 갖고 있고, 한단, 보정, 청더, 정정, 산해관 등 5개의 국가 급 역사문화명성을 갖고 있으며 성급 역사문화명성 7개, 역사문화 명촌 48개 있습니다,

우리는 문물보호작업을 매우 중시합니다. 1984년에 문물보호조례를 출범했습니다. 그 뒤로 문물보호의 추세발전과 현실적 수요에 의해 수 차례 수정 보완했습니다. 여러 차례 성정부의 문물보호작업현황의 보고를 듣고 문물보호집행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올해는 문물보호 집행검사 조사연구를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문물보호 작업을 강화하고 문화 강성건설에 힘을 보탬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보호작업 면에서 승덕피서산장 및 주위 사묘 문물 보호 공사는 거의 준공되었습니다. 청동릉과 청서릉의 문물보호사업이 전면 가동되었습니다. 산해관장성 2기, 금산령장성 등 대표적인 장성 구간에 대한 보고공정을 실시했습니다. 대운하 관리 및 보호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대유적지 보호와 고고 업무를 추진하고, 박물관 건설을 강화하고, 무료개방을 실시합니다.

셋째, 허베이성은 여행자원이 풍부한 큰 성입니다.

허베이성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고 찬란한 문화와 우월한 자연조건을 갖고 있으므로 수량이나 규모가치 면에서 볼 때 여행자원이 풍부한 큰 성입니다. 2015년말까지 허베이성에는 A급관광지구가 모두 338개인데 그 중 5A급 자연관광지구가 6개, 4A급 관광지구 121개, 3A급 관광지구 76개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황실원림인 청더의 피서산장, 중국 현존하고 있는 최대의 황릉 청동릉과 청서릉, 만리장성의 기점인

노룡두와 천하제일관인 산해관, 그리고 화북명주 백양정은 제일 유명합니다. 허베이성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수공예품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요, 자요, 형요와 당산 도자기, 위헌의 전지공예, 굴양의 돌조각 등이 있습니다; 다채로운 지방 전통극과 민간 문예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허베이성 딱따기, 오래 된 노랫가락, 가족인형극, 창주 무술, 오교 서커스 등이 있습니다. 특색이 있는 별미 음식에는 경동 밤, 창주 금사대추 등으로 유명합니다.

허베이성 인대 상무위원회는 여행입법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입법을 통해 전 성의 관광산업 발전을 보호하고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여행 법”이 반포된 후, 본 성의 현황에 따라 “허베이성 여행 조례”의 수정작업을 즉시 가동하였습니다. 2년간의 조사연구, 논증, 심의, 수정을 거쳐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되었으며, 금년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정된 조례는 주로 여행총괄협조체제, 관광발전기획, 관광교통건설과 시장질서에 대해 규범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법규의 실행에 따라 허베이성 관광산업이 보다 크게 빠르게 발전할 것이며, 한국친구들을 포함한 각 나라의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만족스러운 여행경험을 선사하리라 믿습니다.

근년 이래, 허베이성은 관광산업을 많이 중시하고 관광사업을 종합적 지주적 산업으로 만들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장려한 태항산, 금수 장성, 연조사적, 로맨틱한 해안, 동계 올림픽의 빙설, 바상(坝上)초원, 다채로운 경기”등 7대관광상품과 승진당, 허베이 운하, 석보장, 석한단 등 4개의 명품 관광 코스를 중점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와황궁, 야삼파, 백석산, 초원천로, 승례동계올림픽 등 새로운 국내외에 알려진 여행목적지도 한창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허베이성은 교통시설에도 신경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비교적 온전한 시설에 대하여 끊임없이 “3장의 그물”건설을 확대했습니다. 첫째, 도로망을 더 잘 만들어서 도로의 원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둘째, 관광객 서비스망을 잘 만들어서 서비스시설, 가이드, 캠프가 모두 갖추도록 노력했습니다. 셋째, 관광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홍보, 경영, 관리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가했습니다. 이는 허베이성 관광산업의 쾌속 발전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2015년의 통계에 따르면 허베이성은 총 3.72억명의 국내외 여행객을 맞이하였고 관광수입은 3,433.9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는 각기 “2015계획”말의 2.5배와 3.8배로 관광업 증가세가 전 성 GDP비중의 6.2%를 차지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한국 평창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것입니다. 베이징과



허베이 장자커우에서는 202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는 박차를 다해 동계올림픽의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를 통하여, 베이징에서 장자커우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허베이 장자커우와 베이징은 전세계에 빙설의 성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유구하고 찬란한 연조문화는 민족의 기억을 담고 있고, 생기 넘치게 발전하고 있는 허베이성 관광은 각국의 여행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허베이성 인대 상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여기 계신 모든 친구분들이 허베이를 방문하여 레저와 휴가를 즐기고, 협력과 교류를 하도록 초청합니다. 동시에 상호간의 문화관광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진흥과 발전의 길을 함께 도모합니다.

4. 헤이룽장성



전면적으로 동북아지역의 관광협력을 강화하며 공동 수익하는 발전을 추진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첸수타오

존경하신 내빈,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에 방문하여 동북아 지역 지방의회 의장포럼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또한 한국, 일본, 러시아, 몽골 의회 및 중국의 각 지방정부 인민대표대회 대표단과 이 자리에서 우정을 증진하고 협력을 추진하며 공동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제가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사의 주최측인 충청남도 의회에서 본 포럼의 순조로운 개최를 위하여 기여한 노고와 세심한 준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포럼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동북아지역은 아세아에서 경제와 문화가 가장 발달된 지역입니다. 총GDP는 세계 경제 총 량의 5분의1를 차지하며 전세계 구도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경제 글로벌화의 가속화에 따라, 지역적 경제협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동북아지역도 아세아 심지어 전세계 경제 발전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년 이래로 동북아 각 국의 공동 노력 하에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은 부단히 심화되어 문화 관광, 인적 교류 등 영역에서도 기쁜 만한 성과를 취득했습니다. 2009년에 포럼이 처음 개최된 후로 지금까지 이미 6차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현재 이미 동북아지역 각 지방 인민대표대회 (의회)간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 교류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경제글로벌화와 지역통합의 부단한 심화에 따라서 더 많은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동북아지역 각 나라의 같은 소망이



기도 합니다. 근년 이래로 동북아지역의 관광산업이 급속히 발전 되어 현재는 이미 국제관광시장 구도에서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매년 1억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지역 내에서 외국여행을 합니다. 동북아 각 국,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는 서로 다른 나라의 중요한 관광객 배출국이 되었습니다. 전세계 최대 관광객 배출국으로서 2014년에 중국관광객 해외소비 지출은 1,650억 달러에 달하며 전 세계 관광수입의 13%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관광산업은 이미 동북아시아 각 나라 경제발전의 중요한 산업이 되었고, 지역관광협력도 지역경제발전 중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헤이룽장성의 관광산업은 양호한 자원우위, 생태적 우위, 국경개방의 비교우위, 문화트렌드의 독특한 우위를 갖고 있고 거대한 발전 잠재력이 있습니다. 헤이룽장성은 중국에서 가장 북부에 위치하고 위도가 가장 높은 성입니다. 독특한 지리위치와 기후조건은 헤이룽장성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창조하였습니다. 여름에는 생태가 아름답고 시원한 피서의 명승지이고 겨울에는 눈이 휘날리는 은색의 빙설 세계입니다. 1985년에 개최한 하얼빈국제빙설축제는 세계 4대 빙설축제중의 하나이며 규모와 빙설경관 수량은 세계 1위입니다.

헤이룽장성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관광협력을 매우 중시해왔습니다. 2015년에 전 성에서 총 1.29억 명의 국내관광객을 맞이했고 전년 동기대비22.74%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성은 국내 여러 웹사이트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전문적, 시장적, 체계적인 마케팅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동북아지역의 관광산업협력은 좋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첫째는 역사상에서 각국은 밀접한 교류관계를 보유하고, 자연환경, 문화, 교통 및 정부지지 등 방면에서 유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둘째, 동북아 각 나라간에 이미 비교적 안정한 협력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셋째는 동북아 각 나라는 모두 관광영역에서 협력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향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동북아 각 나라 지방 정부 에서도 광범하게 관광자원의 개발 및 통합을 진행하며 소통과 연락을 부단히 강화하여 관광산업의 협력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동북아 각 국가간의 협력이 갈수록 밀접해짐에 따라 지역내의 협력도 더 깊은 차원으로 발전됩니다. 동북아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전망도 매우 광활합니다. 각 나라 정부에서도 소중한 발전 기회를 잡고 아래와 같이 몇 개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동북아 관광산업의 통합적 발전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1.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정부보장 메커니즘을 구축

정책적, 재정적 지지의 강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 개발 발전 계획과 완전한 권익보장 메커니즘을 세우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장벽을 철폐하고 기초인프라의 건설을 강화하여 양호한 관광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2. 정부간 연락 소통 협력의 장기적이고 유효한 시스템을 구축

동북아 각 나라 정부는 정기적 교류와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여 관광산업 발전방향을 분석 연구하여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유리한 것 만 좇고 해로운 것은 피하며 올바르게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전문적인 관리부서를 개설하여 지역관광의 통합 발전 전면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역관광 통합발전 추세 하에 전문적인 관리부서를 개설하고 전 지역 관광자원의 전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동북아 지역 관광산업의 통합 발전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저는 동북아 각 나라간의 부단히 보완된 제도 점점 원활해지는 소통과 갈수록 밀접해지는 연락에 따라서 반드시 동북아지역 관광협력의 공동수익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차 동북아지역 지방의회 의장포럼의 원만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5. 지린성



제7차 동북아시아지역 입법기관포럼에서의 발언

지린성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리룽씨

신사숙녀 여러분! 친구분들, 안녕하세요.

지난 2009년 동북아 지역 지방의회 의장포럼 개최 이래 지방 입법기관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지역경제사회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북아 각 나라 입법 기관들이 또 이곳에 모여 동북아 지역 문화관광의 번영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류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포럼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정성을 다한 충청남도의회 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동북아 지역의 인구는 전세계의1/4를 차지하고 경제총량은 약 전세계의1/4를 차지하고 아시아의70%를 차지합니다. 최근 몇 년간, 동북 아시아 국가들은 상호 존중과 협력호혜의 원칙하에 협력의 영역을 부단히 넓히고 협력의 규모를 확대하며, 협력의 차원을 향상시켜왔습니다. 동북아 지역은 경제분야에서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고 문화분야에서 부단히 융합 하고 서로 보완합니다. 동북아지역의 전체성, 국제성과 안정성은 부단히 강화되어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정치경제문화 판도중의 매우 중요한 지역 플레이트가 되었습니다.

관광은 인류가 경제사회의 발전성과를 누리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중요한 내재적인 인문성 뿐만 아니라 발전의 경제성도 있습니다. 수년간의 발전을 거쳐서 현재 관광산업은 세계 제일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동북아 각국은 모두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아름다운 풍광과 거대한 관광시장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을 거쳐 특히, 중국의 관광 산업이 신속히 발전되었습니다.



동북아는 이미 국제 관광시장 구도중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동북아 각 국, 특히 중일·한·러시아·몽골은 서로 중요한 관광객 송출국이 되었습니다. 관광은 이미 동북아 각 국가간에 인문교류를 진행하는 주된 내용이 되었고, 관광산업도 이미 동북아 각 국 경제의 중요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본국 국민의 취업의 확대, 경제의 발전과 상품소비의 추진을 위하여 매우 독특한 기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은 관광산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일종의 특수한 복합적인 산업입니다. 그 연관도가 높고, 관련된 범위가 넓고, 파급 면이 크고, 선도성이 강해서 신세기 경제 사회 발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신흥산업이 되었습니다. 지린성은 문화 관광추진 면에서 국가의 “일대일로 (一帶一路)”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대량의 성과 높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첫째는 동북아 지역 관광 교류 협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투먼창의”관광위원회 회의(약칭GTI, 중국, 러시아, 한국, 몽골 4개의 회원국을 포함) 동아시아지역관광포럼(약칭EATOF 중국 지린성, 러시아 연해주, 한국강원도, 일본 돗토리현, 몽골 중앙성은 모두 회원입니다)등 교류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합니다. 동북 아시아 각국과 함께 동북아 지역 관광 교류 협력, 상품개발 등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둘째는 부양 정책을 강화합니다. 2014년에 『지린성 관광지주산업 가속 건설에 관한 의견』을 제정 시행했습니다. 허베이성을 생태관광 대성, 빙설관광 강성, 피서양생관광 명성, 국경관광 시범성과 국제지역성 레저휴가관광목적지로 조성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2015년에 지린성 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지린성 관광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국경관광”관련 내용으로 한 장을 만들어서 우리 성 관광산업이 동북아관광산업 발전 구도에 융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적극적인 문화 관광 행사를 개최합니다. 동북아관광포럼은 유엔 “다투먼창의” 비서처에서 발의한 국제적인 관광 학술 교류 회의입니다. 2012년부터 지린성 훈춘시에서 3회 연속 회의를 열었습니다. 2014년 제7회 GTI회의에서 훈춘시는 동북아관광포럼 영구개최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동북 아시아 각국과 서로 다양한 문화 축제, 예술축제, 관광축제를 개최하여 대대적으로 문화 관광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 주제를 둘러싸고 동북아 지역 문화 관광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합니다.

첫째, 지역 문화 관광 협력 추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합니다. 문화관광은 정부의 여러 부서와 사회 각 층의 협력하에 공동 추진되어 이를 부단히 발전시키고 보완해야 합니다. 지역 문화 관광 협력 추진 메커니즘을 한층 더 보완시켜서 동북아지역 지방정부의 관광 문화 부서의 주도하에서 대학교, 미디어 및 사회 각 계의 참여로, 지역문화관광협력의 전략, 방침과 메커니즘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의하고 연구하며 협력 과정에서 나타난 중대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문화 관광 산업의 발전, 관광상품의 보급, 상호추천 노선, 상호 관광객 송출하는 등 문제에 대하여 교류와 논의를 합니다.

둘째는 공동으로 동북아 국경 넘는 관광 상품과 노선을 개발합니다. 동북아지역 각 국의 관광 자원, 문화의 우세에 의지하여 지역 내 다양한 시장수요를 방향으로 잡고 우리 문화관광 방면의 공통성을 깊이 발굴하고 동북아를 향하여 전세계를 향하여, 공동으로 문화관광상품의 통합과 서비스요소의 조합을 잘 수행하고 관광 프로그램의 문화적 의미를 향상 시켜 특색 있는 세계 유명한 관광노선을 육성하여, 매력과 판매가치를 형성하여 지역 핫이슈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전세계에 보여줍니다.

셋째는 동북아지역 관광의 편리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동북아 지역 각 지방은 서로 관광목적지이자 관광객 송출국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본 지역 내 관련 부서에서 지역장벽을 철폐하고 관광적 장애요소를 감소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편리함의 수준을 향상 시킵니다. 국경 인접지역 주민의 편리관광을 돌파구로 삼아 안정적으로 점차적으로 비자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관광비자 및 통관수속을 간소화하고 통관효율을 높입니다.

넷째는 관광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연결합니다. 포럼 참가지역은 함께 노력하여 관광을 편리하게 하는 인프라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관광교통 네트워크를 함께 노력, 구축하여 지역교통운송이 편리하게 해야 합니다. 출국 공항 항구가 원활하면서 질서 정연하고, 또한 허브시설의 구조가 합리적이고, 다양한 운송방식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관광통합운송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북아지역 관광발전에 대한 교통 네트워크의 추진과 연계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통합적인 관광 이미지를 형성하고 홍보를 확대합니다. 역사 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의 맥락을 파악하고, 핵심 주제를 추출하여, 통합적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고 동북아 문화관광을 하나의 통합된 목적지 이미지로 대외 홍보하고 보급하여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추진합니다. 지역 내부에서는 각 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 축제를 적극적으로 상호 참가하고 본 지역에서 다른 나라의 관광자원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급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친구분들. 세계 관광산업이사회 (WTTC)의 예측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관광산업은 이미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관광산업이 전세계GDP에 대한 종합적 기여는 전세계 GDP총량의 10%를 차지합니다. 취업창출은 전세계 취업총량의 9.5%를 차지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부진한 현황에서 관광산업은 지방경제,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지주산업 입니다.

우리는 동북아 지역 지방입법기관들과 함께 교류와 왕래를 강화하고, 관광경제를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와 이익을 증진시켜 동북아지역 문화 관광 협동발전에 유리한 국면의 형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나라현



place your text here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의장 포럼

나라에로의 초대

-나라현의 인바운드 전략에 대하여-

나라현의회 의장 나카무라 아키라

나라에로의 초대

~나라현의 인바운드 전략에 대하여~ (2016.4.19)



나라현
일본국





나라현의 가치에 대하여

NARA

① 일본국가의 성립
Establishment of Japan as a Nation

② 유래없는 국제성
Unparalleled Internationality

③ 일본문화의 발상
The birthplace of Japanese Culture

2

나라현의 3대 세계유산

NARA

※The first Site registered in Japan

법륭사지역의 불교 건축물 (registered in 1993)
Buddhist Monuments in the Horyuji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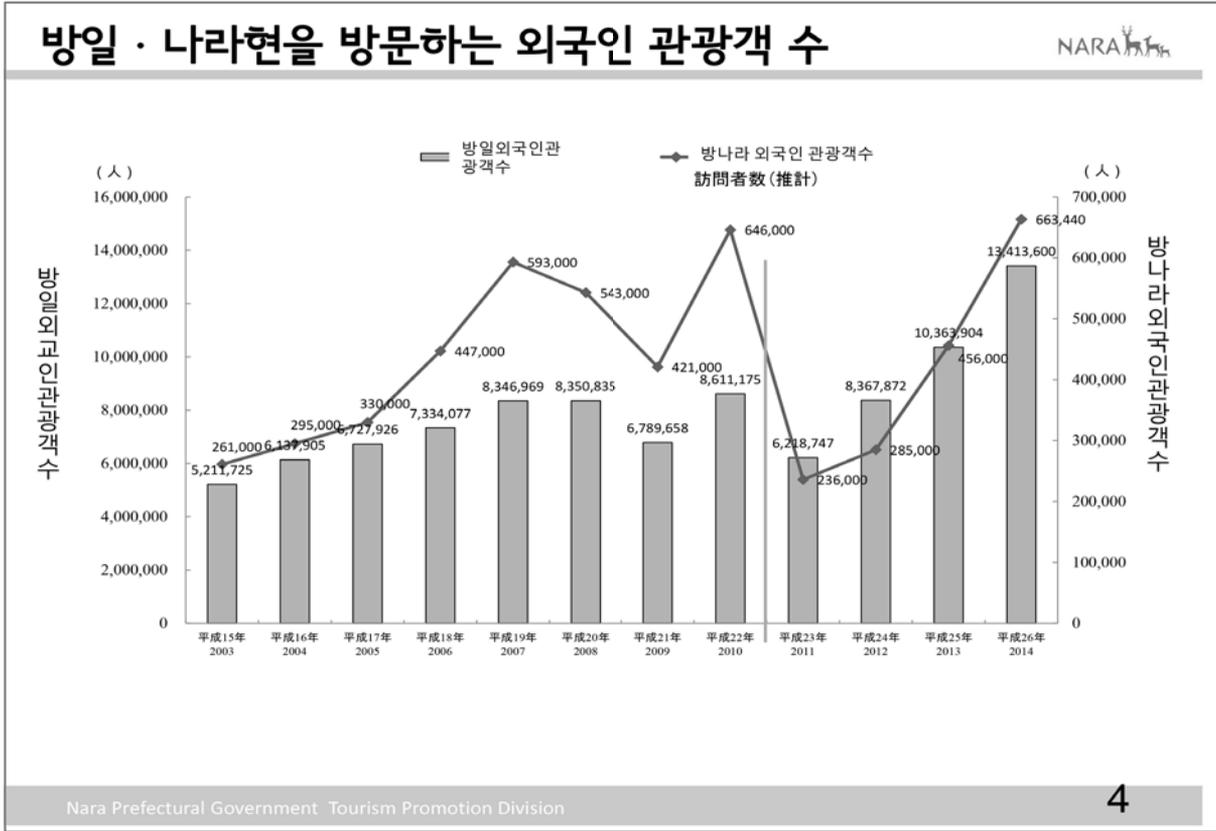
고도 나라현의 문화재 (registered in 1998)
Historic Monuments of Ancient N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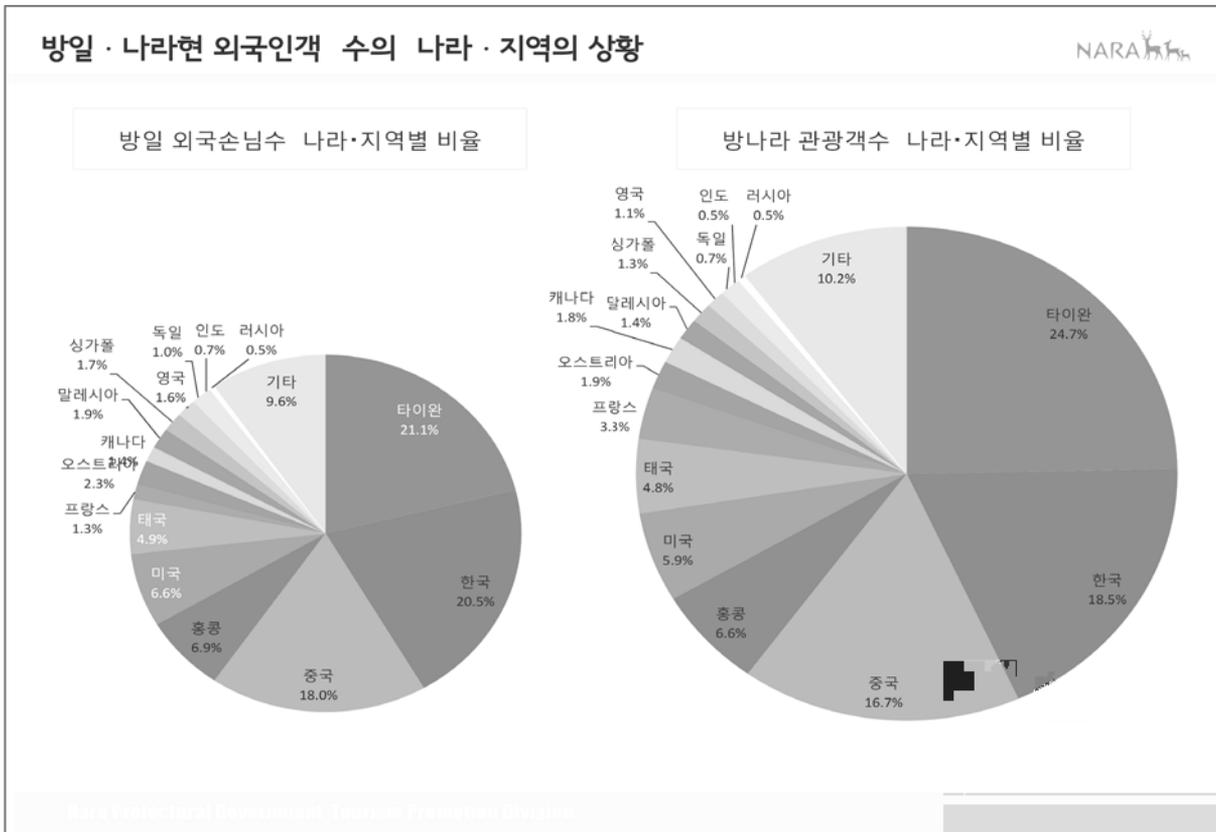
기이산지의 영지와 참배 (registered in 2004)
Sacred Sites and Pilgrimage Routes
in the Kii Mountain Range



3



4





2020년을 향한 나라현의 국내여행전략



기본방침

- 외국인 관광객이 「자유롭게」, 「안심」 하고, 체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관광지로 !
-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소비에 의해 지역이 활기찬 관광지로 !
- 해외를 향한 『NARA브랜드』· 『NARA특성』의 발신에 의한 지명도 향상 !

2020년을 향해서, 「NARA」를 일으키자 !

「NARA」가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브랜드가 되기 위한 전략

전략① 해외프로모션의 강화 및 정보발신의 강화

해외관광 프로모터의 설치

여행상품 코디네이터의 설치

해외여행사· 홍보 매체 등을 활용한
정보발신

나라현 외국인 관광객 교류관을 활용한
정보발신

웹사이트· SNS등을 활용한 정보발신

전략② 손님맞이· 환대 환경의 향상

나라현 외국인 관광객 교류관
「나라현 사루자와인」을
거점으로 하는 손님맞이· 환대

다중언어 대응의 충실

통역가이드 등의 활용·충실

W I F I 환경의 정비

나라현 외국인 관광개 교류관 【사루자와인】의 개설



사루자와 연못 주변을 외국인을 비롯한 관광객 유치로 변화한 지역이 되도록,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기능· 교류· 숙박기능 등을 갖춘 거점 「외국인 관광객 교류관 【사루자와인】」을 개설. 사루자와 연못 남쪽정원의 공간을 일원화하여, 사루자와 연못 주변의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숙박에 관해서는 2016년 추계오픈 예정.

< 주요기능· 서비스 >

- ① 관광안내· 정보발신기능
- ② 교류기능(외국인 관광객간의 교류, 일본· 나라문화 등의 체험)
- ③ 숙박기능
- ④ 기타 환대 서비스 (물건판매· 수하물 보관· 렌탈 사이클 등의 기능)
- ⑤ ATM서비스



N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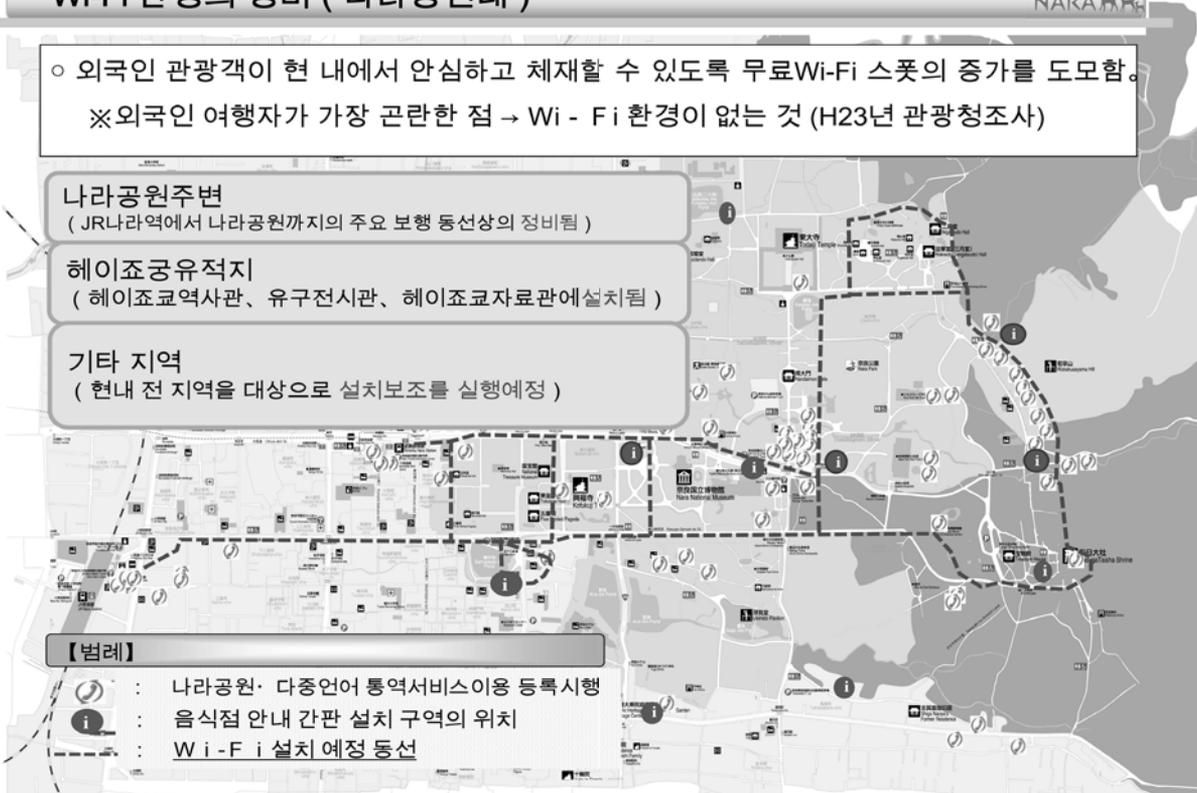
Wi-Fi 환경의 정비 (나라공원내)

○ 외국인 관광객이 현 내에서 안심하고 체재할 수 있도록 무료Wi-Fi 스폿의 증가를 도모함.
 ※외국인 여행자가 가장 곤란한 점 → Wi - Fi 환경이 없는 것 (H23년 관광청조사)

나라공원주변
 (JR나라역에서 나라공원까지의 주요 보행 동선상의 정비됨)

헤이조공유적지
 (헤이조료역사관, 유구전시관, 헤이조료자료관에 설치됨)

기타 지역
 (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보조를 실행예정)



【범례】

-  : 나라공원·다중언어 통역서비스이용 등록시행
-  : 음식점 안내 간판 설치 구역의 위치
-  : Wi-Fi 설치 예정 동선

NARA 

나라현 최초의 외국자본 호텔

~ 나라현 「오오미야대로 신호텔 교류 거점 사업」~

마riott· 인터내셔널의 「JW마riott 나라」가 2020년 봄에 개업합니다. JW마riott 브랜드의 호텔이 처음 일본에 진출하게 됩니다.
 JW마riott는 마riott· 인터내셔널 최고급 브랜드 호텔로, 마riott· 인터내셔널의 5,500만명이라는 세계최대급의 그룹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라현이 지향하는 신 호텔사업은, 전 세계로, 나라의 매력을 알림과 함께, 국내외의 여행자의 새로운 관광거점의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칭 : JW마riott호텔 나라
 클래스 : 최고급
 객실수 : 150
 개업예정 : 2020년 봄



JW MARRIOTT.

9



나라현으로의 액세스



JAPAN FROM KANSAI INT'L AIRPORT TO **N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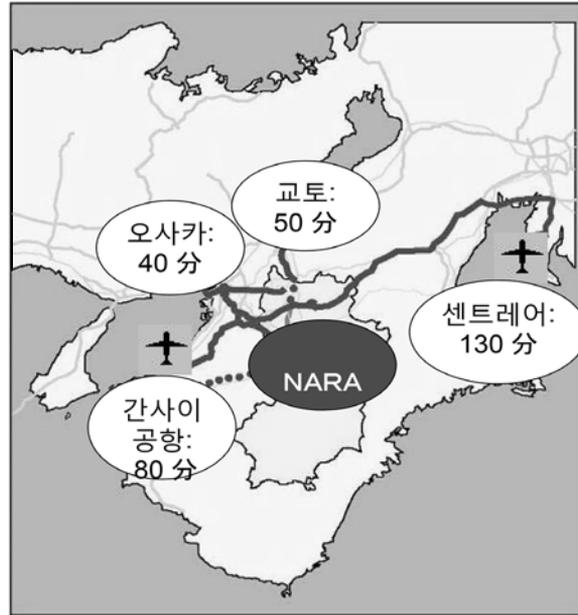
ACCESS to NARA

JR KANSAI-AIRPORT Sta. → TENNŌJI Sta. → JR NARA Sta.
Approx. 1 hr. 20 min. JR Kansai Airport Line & JR Yamatoji Line ¥2,395

Nankai KANSAI-AIRPORT Sta. → NABA Sta. → Kintetsu-AIRPORT Sta. → NARA Sta.
Approx. 1.5 hr. Nankai Airport Line & Kintetsu Nara Line ¥1,430

KANSAI AIRPORT Terminal 1 Bus Stop No.9 → NARA Sta. → NARA Sta.
Approx. 1 hr. 25 min. Limousine Bus ¥2,000

奈良



7. 니가타시



place your text here

동북아시아지역간의 관광교류와 협력

니가타시의회의장 다카하시 미쓰요시

이번 포럼개최에 즈음하여, 지대한 힘을 주신 충청남도의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회(제6회)포럼에서는 많은 대표단이 니가타시를 방문해 주셔서 동북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문화에 관하여 상호이해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한층 새로운 교류·협력관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확인하며 일보전진한 회의가 되었습니다. 본 포럼의 목적에 입각하여 금회의 테마인 동북아시아지역의 관광교류와 협력에 관하여 제언을 하겠습니다.

1. 일본에 있어서의 관광동향

먼저, 일본에 있어서의 관광동향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일본정부는 2003년에 방일 프로모션사업(비지트 재팬사업)을 개시하여 2013년에는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 1,000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직후부터 「2020년까지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 2,000만명의 달성한다」라는 목표를 내걸고 손님유치에 총력을 기했습니다만, 작년(2015년)은 역대최고인 1,974만 명에 이르러 2020년을 채 맞이하기도 전에 2,000만 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일 외국인여행자의 체재 지역을 일본 47도도부현 별로 집계해 보면 동경-나고야-교토-오오사카 간을 잇는 골든 루트라고 불리워지는 지역의 8도부현이 전체의



약62%를 차지하고 그 외의 약38%가 우리 니가타현을 포함한 나머지 39도현이 업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근년에는 방일외국인 여행자의 증가에 의해 수도권에서는 숙박 시설과 버스의 부족, 숙박비 양등 등의 영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만, 한국, 중국 등의 재방문자는 일본에서의 새로운 방문 지역을 찾아 조금씩 지방도시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동경(일본)에서 하계 올림픽·파라림픽(국제장애인 올림픽대회)의 개최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내방하는 외국인손님을 받아들일 환경정비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알기 쉬운 도로표식이나 안내사인의 정비, Wi - Fi 환경의 정비, 다중 언어 표기 화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일본 여관의 일본식화장실을 서양식으로 개조하고 국제방송TV의 정비 등과 외국인이 이용하기 쉬운 숙박시설을 늘려 관광지의 호텔 부족 해소를 꾀하고 있습니다.

2. 니가타시에 있어서의 관광동향

다음으로 니가타시 관광의 현황과 추진에 관해서입니다.

니가타시에 관한 수치 데이터를 보면, 2009년 이후 관광에서의 니가타시 내방자는 증가경향에 있습니다.

또, 외국인 연 숙박자수에 관해서도 2011년 이후는 증가 일로에 있고, 속보수치입니다만 작년(2015年)은 전년 대비 38.6%가 증가하여 약 59,000명에 이릅니다. 관광을 둘러싼 정세는 사회정세와 경기의 영향 등에 의해 시시각각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니가타시의 관광 착수에 관해서는 국가와 현, 타 지방자치체를 필두로 시내의 숙박 시설이나 여행대리점 등의 관광관계자와 함께 니가타시 만의 독특한 음식과 꽃, 항구도시문화를 배경으로 한 풍부한 자연, 온천, 문화, 이벤트 등의 관광자원, 또 일본해안의 거점지로서의 지리적인 우위성과 공항·항만·육상교통망이 충실한 교통요지라는 점등의 강점을 살려서 국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극동러시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외에서도 관광객유치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지 여행사나 매스컴용의 관광 프로모션, 세일활동을 하여 여행상품조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지에서 개최되는 관광PR이나 이벤트, 여행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현지의 일반 소비자에게 본 시의 매력을 발산하여 손님유치에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제회의와 전시회·시범도시, 이벤트 등의 유치이외에 애프터 컨벤션의 충실, 문화·스포츠 커미셔너와의 연대, 컨벤션 볼런티어의 육성,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가타시의 매력향상에 관하여서도, 농가 레스토랑이나 농업 체험 등을 이용한 니가타시만의 독특한 어그리투어리즘(농촌민박, 도시거주자 등이 농장이나 농촌에서 휴가·여가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식문화 체험형의 투어리즘(tourism. 관광여행, 관광사업, 관광업)을 전개하는 것 외에 본 시가 가지고 있지 않는 매력을 타 도시와의 연계에 의하여 상호 보완하는 등의 매력 있는 에어리어의 형성과 광역 관광 루트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환경정비에 관해서는 관광 팸플릿의 배포 또 관광 안내기능의 충실, 관광 순환 버스의 운행, 안내사인의 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외에서의 관광객이 안심과 불편 없이 체재하실 수 있도록 Wi-Fi 환경의 정비, 다중언어 표기화, 외화 환전, 소비세 면세점, 캐싱에 관한 정보발신 앱 등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동 아시아 각국과의 입구에 니가타 공항, 니가타 시가 있다는 것은,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니가타현 내의 스키장에 가는 것이 목적인 여행객에게는 니가타 공항으로 입국하셔서 우선 니가타시를 관광하신 후 산간부의 스키장으로 향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니가타시에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만, 니가타항구는 크루즈 객선의 입항과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용선계약이 된 크루즈객선이 입항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층 확대 시켜 니가타시의 크루즈 진흥에 결부시키고 싶은 생각입니다.

또한, 동경에서의 숙박비가 양등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니가타시는 동경에서 신간선으로 2시간 이라고 하는 좋은 조건을 살려서 나리타공항이나 하네다공항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도 니가타로 오실 수 있도록 공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가타시의 매력을 높이고 정보를 발신하여 「니가타시를 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니가타시를 다녀가신 분들로 부터는 「니가타는 참 좋았다, 또 가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동북 아시아에 있어서의 협력

다음으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관광분야의 협력에의 기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가타시는 현재 동북 아시아의 5대 도시와 자매·우호 도시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와는 시민에 의한 상호방문의 기회를 가질 것을 행정으로서도 지원하고 있고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니가타시의회로서는 자매·우호도시 이외의 도시와도 서로의 의회와 협력교류 각서를 교환하고 있는 이외에 이 동북아시아 지역 지방의회 의장 포럼에는 제 1회부터 매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의회의 분들과 교류하고 의견교환을 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협력관계의 발전을 기대함과 동시에 이 네트워크를 관광분야의 협력에 활용해 갈 것을 니가타시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유엔세계관광 기구(UNWTO) 발표의 세계관광동향에 의하면, 국제관광객 도착수에 있어서는 유럽의 세어는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서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 아시아 태평양의 세어가 최근 10년 사이에 4.0포인트 증가하여 매우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는 동경(일본)에서 하계 올림픽·파라림픽이 개최되고 그 전의 2018년에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파라림픽이 개최됩니다.

세계 속에서 지금 이상으로의 아시아가 클로즈업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 니즈를 적격하게 파악하여 관광정책을 추진할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인하여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방의회 및 정부의 구체적인 활동을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관광시장의 활성화와 확대에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럼에 참가하시는 각 지방의 관광정보 등을 집약해서 각각의 의회대표단은 각 정부의 담당자나 관광협회 등에 각 지역의 정보를 집약한 성과물(자료)을 보내드림과 함께 관광객의 니즈에 부합한 여행상품조성에의 협력을 꾀한다면 어떠하십니까?

또, 행정이나 의회가 깊은 교류를 가지는 것에 의해, 지방 상호간의 신뢰관계 구축에 연계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 발전과 회의, 이벤트 등의 유치 등을 기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교류가 활발해 지는 것은 서로의 관광시장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동북아시아에 의한 평화와 교류의 더한층 새로운 발전을 위해 니가타시 의회는 앞으로도 본 포럼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 그리고 개최지의 (주민) 여러분과의 교류를 소중히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됩시다만, 충청남도의 여러분, 그리고 포럼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의 건승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8. 프리모르스키주



place your text here

제7회 동북아시아지방의회의장포럼 발표자료

연해주주의회의장 고르차코브 V.V.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여러분!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의장 포럼 주최측에서 환대해주시고 손님대접이 융성한 충청남도에서 이 행사를 잘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포럼이 벌써 제7회를 맞이했고 이것은 저희 지방들이 상호이해를 강화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이런 종류의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해주 주민들은 저희 도시들과 국가들 간의 우호선린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국가들의 풍성하고 다양한 세계는 광범위한 계층의 러시아 국민들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연해주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저희는 이웃이며, 바로 옆에 살고 있고, 최근 여러 해 동안 지리적 근접성 뿐 아니라 오래전 부터 이어져온 우정과 상호존경, 신뢰의 전통으로 인해 저희 국가들이 단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유대가 깊습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이제는 이미 저희들에게 "terraincognita"(미지의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기쁩니다. 많은 러시아 국민들이 관광 또는 "쇼핑" 목적으로 동북아국가들을 방문했습니다. 아시아기업들, 즉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 화학 및 식품, 자동차 및 의류업체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주민들은 쉽게 아시아 국가들의 글자간의 차이를 분별하며 아시아음식들을 맛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연해주에는 동양 언어들과 동양국가들의 국가체제 특성, 세계사와 문화의 일부가 된 그들의 전통을 공부하는 대학들, 단과대학들과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극동연방대학교는 일본, 중국, 및 대한민국의 우수대학교들과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및 협약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교육프로그램, 과학연구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및 교수강사 교환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공동강의, 학술대회, 세미나 및 컨설팅, 초청과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과, 간행물 및 정보교환, 공동과학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학술적 출장 및 연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협력은 블라디보스톡 국립경제 및 서비스대학교, 네벨스크국립해양대, 극동어업대와 같은 다른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연해주 문화예술 기관들도 동북아시아 인접국들과 문화교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연해주에서 개최되는 축제, 경선, 행사들에 일본, 한국 및 중국대표단들이 참가하는 것이 이미 전통이 되었습니다.

벌써 5년째 연해주에서 러시아, 중국, 한국이 참여하는INTERNATIONAL ARTS FESTIVAL(국제예술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해외연주자들은 재즈축제와 록음악축제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민간참가자들입니다. 전시-미술활동분야에서도 활발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르세네프 연해주박물관과 고리키주립도서관은 매년 아태지역 국가들의 전통 응용미술전시회와 전통문화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해주 직업적 전문가팀 및 독립 팀들은 속초시의 국제청소년창작페스티벌, 전통적인 한국청년 예술제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아태지역국가 태평양자오선 영화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연해주 주민들이 일본의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 한국의 김기덕 감독 또는 중국 지아장커 감독의 팬이기 때문에 이 영화제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톡은 아태지역국가의 경제적 특히, 문화적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푸틴 대통령은 "공통의 역사와 긴밀하게 엮힌 운명으로 저희는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화적 대화의 전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발전시켜 나가며 저희 국가들 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해주 내에서 저희 국가들의 협력은 전망이 밝습니다. 이것은 경제 및 무역분야 뿐만 아니라 관광 및 문화유대 발전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동북아국가들에서 문화 및 관광분야협력 개발계획들"의 의미하는 바는 더 자주 만나고 더 활발히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상호협력을 통해서 만이 우리는 서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서로 방문해야 합니다. 한국말에 “마음이 이끄는 대로 발길도 따라간다.”고 하듯이 말입니다.

친애하는 친구여러분!

동양이 서양과 만나고, 독특한 방식으로 유럽문화가 아시아 문화와 만나는 저희 지역의 지리적 위치 자체로 인해 연해주는 러시아 극동의 지역간 관광허브요 여러 다른 방향으로 관광노선이 구성되는 시작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는 극동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체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패키지를 개발하는 핵심 거점이 될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후가 쾌적하고 독창적인 문화와 자연경관이 있습니다. 교통인프라가 충분히 잘 발전되어 있으며(현대적 공항, 지역항공사 네트워크, 해상, 철도 및 자동차교통연결, 국경통과 지점이 위치), 활발히 발달하고 있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에서 관광객들의 흐름이 늘어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해주는 또한 현재비즈니스 관광규모에서 극동의 선두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국제 전시회, 회의행사 수 및 규모, 외국공식 및 비즈니스대표단들의 방문 회수에 있어서 저희 주는 극동에서 선두 위치 중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 전시회 행사들 중의 상당부분은 현대적인 극동연방대캠퍼스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열릴 대규모행사중 하나로 5월에 개최되는 태평양관광포럼이 있습니다. 모두들 참석하시도록 초청합니다. 9월초 블라디보스톡 루스키섬에서 제2회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해주는 러시아 극동최대의 관광허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프로젝트들에 참가하시도록 초청합니다.

저희 주의 15개 지자체가 포함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프로젝트 실행은 저희 지역의 관광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대 8일까지 단순화된 비자 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어떤 입국지점을 통해서든 입국하여 이후 러시아 전역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해주는 체류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호텔, 민속테마파크, 군사박물관, 다양한 휴양소, SPA-센터, 요양소, 아쿠아파크와 수족관, 그랜드 다이빙센터, 요트클럽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은 루스키섬 우선개발지역의 일환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또 다른 연해주는 관광분야 중요 프로젝트는



프리모리에 통합오락 휴양구역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가족휴양시설, 비즈니스 및 이벤트관광시설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게임시설도 이미 있습니다.

작년 말 최초의 카지노를 갖춘 호텔인 TigredeCristal이 개장했습니다. 프리모리에 통합오락-휴양구역은 2022년에 전면 가동할 예정입니다.

강력한 관광허브로서 연해주핵심프로젝트 중의 하나는 블라디보스톡클러스터입니다. 현재 블라디보스톡은 아태지역러시아의 비즈니스, 문화 및 관광거점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인프라를 갖춘 현대해양도시로서 전세계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장대한 교량들은 이미 연해주 주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는 연해주의 역사문화 유산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으며, 유명박물관들, 극장들, 회화 갤러리 등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도시권내에서 중요한 국제스포츠행사들, 영화제, 음악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마린스키극장의 분원인 연해주오페라 발레극장이 있고,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인 바리톤 고성현이 출연하여 성공적으로 공연한 바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인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분관이 블라디보스톡에 생기게 됩니다. 특히 독창적인 클러스터시설은 블라디보스톡 요새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이 요새는 19세기말-20세기 초에 블라디보스톡과 그 일원에 건설된 독창적인 방어시설 들의 집합체로 현재 122개 블라디보스톡 요새시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연해주는 독특한 자연을 가진 지역으로 특히 **생태관광**개발이 유망하다고 봅니다. 아름답고 편리한 해변, 바다, 우수리스크타이가삼림, 시호테-알리냐 풍광을 찾아서 전 세계에서 여행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저희 주내에 표범의 땅과 우데게이스크 전설 국립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호랑이 아무르와 염소 티무르가 살고 있는 사파리공원도 방문해 보십시오.

현재 저희는 연해주내 항공 운송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비행기들이 가장접근이 어려운, 주내의 지역들까지도 날고 있습니다.

농업관광도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농장을 방문하여 농산물 생산과정을 견학하고

젓소의 우유를 짜고 우수리스크타이가의 원료로 생산한 지역와인을 시음할 수 있습니다.

연해주를 관광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저희가 어떤 일들을 더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주내에 관광-레저클러스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학 및 교통 인프라인 연해주 환상도로, 피단산 및 이주르루드 환상도로 구축 재정지원문제는 이미 러시아연방 국내 및 해외여행개발 연방특별프로그램에 포함되었습니다. 2019년까지 전체 민간 투자규모는 43억 루블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의 실행으로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시설들과 연해주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자유항 내에는 국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내에 체류하면서 자유로운 시간에는 저희지역의 명승지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지역의 관광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저희 주에 연해주 관광안내센터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여기서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사용언어에 관계없이 연해주 관광시설과 노선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인접국의 문화를 알게 됨으로써, 저희는 서로서로 더 가까워지고, 중요한 점은 서로의 유대관계에 신뢰를 쌓게 됩니다. 신뢰가 없이는 경제에서도, 정치에서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다리가 없으면 강을 건널 수 없다”는 일본말처럼 지금까지 저희는 우호선린의 튼튼한 교량을 놓았고, 저희국가들이 서로서로 더 가까워지고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극동과 연해주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보여드릴 것과 제공해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손님을 대접할 줄 압니다. 이 포럼에서 저희들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통합된 관광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성과가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현재 경제적인 유대가 급속히 강화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대중매체가 확장되고, 다양한 국가 및 국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화가치교류가 널리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운명이 하나의 전세계적인 운명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운명이 행복할 것인가 아닌가는 저희에게 달려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 손안에 있습니다. 저희포럼의 엠블럼이 이를 아주 잘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 투브 아이막



몽골 투브 아이막 문화 관광 분야의 현황과 개선방안

투브 아이막의회의장 체덱 메스사이항(Tsedev Mendsaikhan)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동북아시아 지방의회의장 포럼에 참가하는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일본 각 지방 정부의 대표단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의장 포럼에 참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럼에 참가하는 대표단들의 편의와 안전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김기영 충청남도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모든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참가국 기관간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는 지역 단체들이 경험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포럼 주제인 “동북아시아 지역 간 문화와 관광 교류 협력 방안”은 오늘날 제일 적합한 주제라고 판단이 되며 이번 포럼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몽골을 전세계적으로 유목민의 나라로 또한 초원의 나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몽골은 세계에서 유목 생활과 현대적인 도시생활이 동시에 생존하는 단 하나뿐인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 투브 아이막은 몽골내에서도 관광 특색이 있는 지역입니다.

1. 투브 아이막은 지리적으로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제일 가까이 위치합니다.



울란바타르시는 130만명 인구에 몽골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우리 도의 대표 도시인 조웅머드시(Zuunmod city)는 울란바타르에서 약 43km 거리에 있습니다.

2. 우리 아이막은 도시생활과 유목 생활이 결합된 독특한 지역입니다. 몽골 초원에서 가장 중요한 가축은 말, 양, 염소, 소, 낙타로 몽골인은 이를 '오축'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말은 몽골인의 발과 같은 존재로 몽골 유목민이 넓은 초원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동물입니다. 투브 아이막은 말의 수가 몽골에서 제일 많으며 총 가축 수로 몽골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도입니다.
3. 늘어나는 여객과 항공 화물의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 국제공항이 착공 중이며 2017년 1월 1일 개항할 예정입니다. 새 공항은 조웅머드시에서 12km 거리에 위치합니다.
4. 우리 도는 문화유산과 역사적인 명소들로 유명하며 중세시대 몽골의 석인상(제주도의 돌하르방과 유사함), 암각화 유적(암각화란 바위나 큰 암벽에 인물이나 동물 등의 형상을 새기거나 그려서 표현한 그림), 흉노 제국의 유적, 튀르크 시대의 기념비, 17세기 몽골의 유명 시인 척트 흥타이즈의 바위에 새겨진 시, 유명 사원과 절, 칭기즈칸기념 동상 등이 있습니다.
5. 투브 아이막은 교통 인프라 등 주변 입지 및 환경이 매우 우수하며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국제 철도가 있습니다.
6. 우리 도에 관광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우리 지역에만 68 개의 호텔, 휴양, 요양 시설, 21 개의 관광 명소, 6개의 사원과 절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역사 속으로 떠날 수 있는 위대한 몽골 제국을 연상하게 하는 관광 휴양리조트도 포함이 됩니다.

몽골의 각 지역마다 계절별 여러가지 행사와 페스티벌들이 개최되며 몽골 유목민들의 독특한 문화와 풍습, 전통 등을 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음력으로 한 해의 첫째 달에 한국의 설날과 같은 유목민의 중요 명절 “차강 사르”라는 명절이 있는데 뜻은 “하얀 달” 입니다. 몽골에서는 흰색을 평화와 순수 또는 어머니의 모유로 비유합니다. 새해를 밝고 투명한 마음으로 맞이한다는 뜻도 담겨 있지요.

몽골의 겨울에 즐길 수 있는 축제로는 독수리 사냥 페스티벌인 “이글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독수리 사냥꾼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직접 구경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축제이다.

여름 축제로는 매년 7월 11-13일에 열리는 몽골 최대의 대표적인 민속 축제이자 스포츠 축제인 “나담 축제”가 있습니다. 몽골 전통 씨름, 말 타기, 활 쏘기 등 3 가지 경기가 축제의 중심을 이룹니다. 몽골 전국에서 각 부족을 대표해 모여든 선수들이 전통적으로 유목민에게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면서 각 부족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이들 종목에 참여하여 축제 기간 동안 각축을 벌입니다. 몽골 전국적으로 21 개 도의 300 개 군에서 7월 달에 열리는 제일 큰 축제 중 하나입니다.

8월 달에는 “칭기즈칸의 병사들”, “기마병” 등 몽골 유목민들의 각양 각색의 축제와 행사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9월 달에는 몽골에서 흔히 여러 지역에서 가축을 각인하는 축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망아지 귀나 몸에 도장을 찍고 마유주(말 젖을 발효 시켜 만든 술)를 즐겨 마시는 몽골 유목민의 축제이다. 또한 말 타기 체험, 낙타 타기 체험, 개 썰매 타기 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투브 아이막은 생태 관광개발을 위하여 “호스타잉 노르” 국립 공원에서 멸종위기인 몽골에서만 서식하는 야생 말 “타히”, 야생 양 “아르갈”과 야생 염소 “양기르”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몽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59%가 우리 도를 방문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가고 싶은 10 곳 안에 투브 아이막 지역에 있는 “테렐지” 국립 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브 아이막 개발 프로젝트 2008-2023년” 프로젝트에서는 우선 순위로 우리 도의 관광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자립적인 관광 지역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 도 관광 지역을 4 구역으로 나누어 개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 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구역
2. 관광개발 중에 있는 구역
3. 관광발전 가능성이 있는 구역
4. 관광 특별 구역



이들 구역에서 이미 여러 관광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칭기즈칸 동상”, 108미터에 달하는 “마이다르 부처님의 동상”(뉴욕의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음) 등이 있습니다.

급속히 변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국제 관광사업 시장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몽골 정부에서 관광 개선사업의 증진과 지역협력 공동 사업 등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몽골에서 “동아시아 관광 포럼”(East Asia Inter-Regional Tourism Forum - EATOF)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본 포럼에 러시아 연해주, 대한민국 강원도, 중국 지린성 등이 참석을 했으며 아름다운 충청남도에서 또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몽골인들의 주 여행 국가는 유럽, 아랍에미리트, 동남아 태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며 동북아 지역내에서는 러시아 부랴티아(바이칼 호소), 중국 내몽고자치국 하이난, 대한민국 서울, 제주, 일본 동경(스모 경기 관람) 등이 이에 속합니다.

민간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도에 한국국제협력기구(KOICA)에서 파견된 관광 전문 인력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 풍습이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소통하고 공동의 발전과 이익을 추구하고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관광교류협력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정부의 관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문화관광 교류협력이 한층 더 확대되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7차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의 원만한 성공을 빌며 모든 참가국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 엔벤조선족자치주



place your text here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장포럼에서의 발표

옌볜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의장 차 광 철

존경하는 김기영의장님과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충청남도에 모여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장 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는 중국연변 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하며 또한 회의의 주최측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는 일본 니가타시에서 어떻게 문화교류로 동북아시아 협력관계를 맺을 지에 대해 함께 토론했습니다. 참가국들은 같은 질문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고, 예상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간 동북 아시아 문화관광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교류를 토론할 것입니다. 이번 성대한 모임을 통해 여러분이 뛰어난 식견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문화관광교류협력발전의 길을 검토함으로써 본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촉구하는데 지혜와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노력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더욱 더 풍부하고 실무적인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연변주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매우 중시해 왔습니다. 자연생태, 국경지역의 위치, 민속 문화 등 우위를 충분히 이용하여 양생, 레저, 이국풍경, 민속체험, 눈얼음오락 등 여행 브랜드를 육성해왔습니다. 관광산업은 이미 연변국민 경제의 중요한 기둥산업이 되었습니다. 2015년 한 해에 맞이한 국내외 여행객은 1,565만명으로 15% 증가했고, 관광 총수입은 270.3억원으로 25%증가했습니다. 국가와 길림성에서는 연변 관광발전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도문강지역(훈춘)국제협력시범지구의 빠른 건설에



이어, 연변은 동북아시아 관광협력과 발전 속에서의 교두보역할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국무원에서 발표한 <<국무원 관광업개혁발전의 추진사업에 관한 여러 의견>>에서 도문강 지역의 개발협력을 정식으로 국가 “2대6구” 관광발전전략에 포함시켰습니다. 많은 우대 정책으로 인하여 연변에서 전국 소수민족국경관광시범지구의 건설, 도문강삼각주 국제관광 협력지역의 구축, 국제관광협력의 가속화, 동북아관광 공동발전지역의 추진에, 소중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관광업은 동북아시아 각국 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 으로서 이미 각 나라의 정치, 경제 및 문화교류의 교량이 되었으며, 본국 대외개방과 국가간 협력발전을 촉진하는 선도산업입니다. 이번 포럼의 취지는 문화관광교류협력을 한층 더 확대하고 각 지역, 각 도시 간의 문화관광산업발전을 강화하며 교류와 협력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연변은 의회의장포럼의 플랫폼에 힘입어, 지역위치의 우세에 의지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각국의 문화관광 영역에서의 협력교류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본 지역의 경제, 사회와 문화 등 각 방면의 번영발전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소통과 협력체제를 보완하여 의회간의 교류를 촉진합니다. 동북아시아지역 지방 인민대표대회, 두마, 의회가 제도, 자원과 업무상에서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 합니다. 호혜평등, 동거동락정신과 성실한 태도로 서로 왕래 하고 대화로 협의하고, 정보 교류 하는 등 유효체제를 구축하며, 나아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난제와 장애를 해결하며, 최선을 다하여 동북아시아지역 각국이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각 방면에서의 다 차원, 다 영역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합니다. 교류로 발전을 추구하고, 협력으로 번영을 촉진합니다.

둘째는 대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넓혀, 지역 간 상생을 추진합니다. 참가국들은 건설을 돌파구로 관광개발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국제지역관광교류를 강화하며 주기적으로 도문강지역의 관광회견과 상호방문활동을 전개합니다. 우리연변은 국내외 각 항공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관광전세기 운항, 전문항공편을 증설하는 등 방법을 통해 항공통로를 열 것입니다. 도문강지역 육해항로 운행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방해 없는 여행을 한층 강화하여, 대외 특색 관광노선을 확대하며, 연변이 도문강관광협력개발 에서의 대외 “창구”와 지역중심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셋째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간의 공유를 촉진합니다. 계속하여 각 지역이

동북아시아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자원상의 우세를 발휘하고, 점차 참가국 각 지역간의 인재교류의 경로를 넓히며, 나아가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대외개방의 선진경험을 상호 교류합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간의 인원유동, 문화교류, 여행관광에 가장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여행정보교류 플랫폼과 전문화된 공동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해 여행 시장정보와 여행협력프로그램을 공유합니다. 또한 여행정책, 법률법규 등 방면의 정보교류 강화를 통해 본 지역의 국제여행협력과 기획을 공동 연구개발함으로써 국제여행시장 이용률을 높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동북아시아지역 문화관광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와 현실적 의미를 갖춘 전략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세계경제 글로벌화의 대세입니다. 우리는 상호 신임해야 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동으로 협력 발전하여 모두 성공하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중국 연변에 관광하고 투자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유, 개방, 생태, 화합, 행복을 갖춘 연변이 당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내빈 여러분, 친구 여러분께서 모든 일이 순조롭고 건강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a memo.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starting below the decorative bar and ending near the bottom of the p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a memo.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the memo content.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the memo content.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the memo content.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the memo content.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a memo.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starting below the decorative bar and ending near the bottom of the p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a memo.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starting below the decorative bar and ending near the bottom of the page.